

업 복 동

각본/감독 김 유 성

1. 복동 집 아침.

녹음 가득한 산 중턱, 걸려 있던 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초가 촌.
굴뚝마다 밥 냄새를 머금은 새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목청을 자랑하듯 수탉들의 합창이 이어진다.

빼이익- 금방이라도 뜰어질 것 같은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소녀(엄봉선/17세)
척- 어깨끈을 질끈 동여매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엌세간을 다룬다.
푹- 바가지 가득 보리를 퍼 담고 한 구석 잘 모셔진 독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 쌀 한줌을 쥐어 올리더니 보리위에 휘- 뿌린다. 곧 물을 붓고 북- 북- 야무지게 보리쌀을 씻는 봉선.
이때, 쿵럭-쿵럭- 마른기침과 함께 마당으로 내려서는 중년사내(엄선양/51세)
때 이른 아버지의 기침에 벌떡- 마당으로 나서는 봉선.

봉선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봉선의 인사가 무색하게 쿵럭- 쿵럭- 마른기침만 토해내더니 껌런에 불을 붙여 변소로 들어가 버리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빠끔히 확인하고 날래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봉선.

cut to

윗도리를 풀어 헤친 체 넓적다리를 굽으며 쿵쿨- 자고 있는 청년(엄복동/20세)

봉선 오빠- 오빠- 작은오빠- 일어나!

다급한 봉선의 맘도 모른 채 천연덕스레 코에 풍선까지 부는 복동.

봉선 (귀에 바짝 대고) 아부지 인나셨다

아부지란 말에 땡- 코 풍선 터지며 벌떡- 일어나는 복동.

복동 (소매로 코를 훔치며) 버.. 벌써?

아.. 좀 빨리 깨우지..

봉선 두 번이나 깨웠어

복동 아- 나 참..

나 안 일어나면 그냥 막 패버리라고 그랬잖아?

기가 찬 듯 복동을 지긋이 노려보는 봉선.

이때, 쿵럭- 들려오는 아버지의 인기척에 사색이 되는 복동.

off)아버지 봉선아- 봉선아-

베쓰볼 코치처럼 복동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마당으로 나가는 봉선.

봉선 네에-

빼익- 열린 문틈으로 동정을 살피는 복동.

off)봉선 부르셨어요?

off)아버지 오늘 귀동이 오는 날이지?

off)봉선 (손가락셈) 초팔일이니까.. 오늘이 맞네요

휘- 복동의 시선을 따라 보이는 마당

마루에 걸터앉아있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지나 장독대 옆 떡-허니 놓인 물지게가 보인다.

아이쿠- 심장에 손을 가져다 대고 심호흡을 하는 복동.

아버지 (허리춤 뒤지며) 거 광식이네 가서 돼지고기 두 어근 끊어 오거라
공부 하는 놈이 고기를 먹어야 머리를 쓰지

이때, 슬그머니 까치발을 내딛고 문을 나서는 복동을 보고 재치 있게 아버지 시야를 가로막는 봉선.

봉선 아버지, 큰 오빠 좋아하는 쪽국도 끓일까요?

아버지 알아서 해라

잔뜩 발끝에 힘을 쥐 조심조심 물지게 앞에 서는 복동

이때, 췌련에 불을 붙이려다 뭔가 생각난 듯 장독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아버지.

순간, 봉선이 찹싸게 몸을 돌려 아버지의 시선을 또다시 절묘하게 가로막는다.

아버지 복동이 늙은?

물지게를 지려다 제자리에 얼음처럼 굳는 복동.

봉선 버.. 버얼씨- 나.. 나갔죠.

아.. 아버지 시장 하시죠?

아침공기 찬데 방에 들어가 계세요-

금방 상 올릴게요

물지게를 지고 살금살금 밖으로 걸음을 옮기는 복동.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사립문에 닿을 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채 마르지 않은 진흙에 지의 미끄러지며 스트레칭하는 발레리나처럼 짹악- 가랑이가 찢어지는 복동이.

복동 으으아-
아버지 저.. 저 늙은 자식이..
 너 이늙은 자식- 시간이 몇 신데 이제 기어나가 이눔아!!

다짜고짜 빗자루를 집어 들고 달려드는 아버지.

복동은 바지춤을 쥐어 잡고 줄행랑을 친다.

복동 아.. 아버지 그게 아..아니구요
 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어이쿠야- 머리를 쥐어 잡는 봉선.

2. 꽃길 아침.

저잣거리를 향해 길게 들꽃이 피어있는 길.

물통 가득 넘실대는 물지게를 지고 춤추듯 리듬을 타며 걷는 복동이

돌덩이처럼 튼튼한 두 다리로 무게를 지탱하고 긴 두 팔은 노련하게 균형을 잡는다.

엄복동 어르신 안녕 하세요!

나귀를 몰고 지나가는 촌로에게 물지게를 지고 요령도 좋게 넘죽- 인사를 하는 복동.

촌로 오나 오나-
 허허- 고 늙은 언제 봐도 기운이 차고 넘치는 구나-

기분 좋게 복동의 인사를 받는 어르신.

들꽃들도 복동의 걸음에 장단을 맞추듯 흔들흔들 꽃가루를 쏘아 올리고

순간, 어이쿠- 바람에 꽃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미간을 좁히는 복동.

비틀비틀- 안 되겠는지 조심스레 물지게를 내려놓고 저고리로 눈을 훑친다.

이때- 띵 띵-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

돌아보면 산허리를 지나 무언가(?)가 빠르게 복동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휘둥그레지는 복동의 눈.

달려오는 둥그런 것이 분명 바퀴일진대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가?

띠링- 띠링- 자랑하듯 종을 울리며 히죽- 복동을 스쳐가는 사내(한길로/23세/물장수)

헛것을 본 것이 아닌지 땀다 눈을 비비고 다시 고쳐 뜨는 복동.

굵은 쌍거풀이 만들어진 복동의 눈에 희뿌연 꽃가루만 가득할 뿐 어느새 자전거는 사라져 버렸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는 없을 터 고개를 갸우뚱하는 복동.

3. 시전 오전.

“물장시, 물장시” 따라붙는 꼬마 녀석들에게 귀찮은 내색 없이 힘차게 물지계를 지고 유기전으로 들어서
는 복동. 능숙하게 물독에 물통을 가져다 델 찰나 서둘러 내려놓는다.

어찌된 일인지 독 가득 들어 차 있는 물.

off) 주인장 어이구 이를 어찌나, 어이 복동이- 물 벌써 받았네

보면 난처한 표정의 주인장이다.

주인장 길로 놈이 먼저 왔지 뭐가.. 거 좀만 빨리 오지

복동 네- 안녕히 계세요

넙죽- 인사하고 맞은편 포목전으로 들어가려는 복동.

이때, 물통을 내려놓기도 전 툭- 긴 자로 복동의 어깨를 두드리는 누군가.

우는 갓난이를 등에 업고 어르는 여주인이다.

여주인 복동이 총각, 오늘 물 받았어

복동 네?

여주인 방금 전에 길로 총각 왔다 갔어

울상이 되는 복동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더욱더 크게 울어 꺾히는 갓난이

여주인 영랑이, 똑! 자꾸 울면 순사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순사라는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똑- 입을 닫는 갓난이를 뒤로 허탈하게 물지계를 들쳐 메는 복동.

에휴- 게으름을 탓하는 자조 섞인 한숨이 터져 나오는 순간, 띠링- 띠링-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에 익은
종소리. 아차! 뒤를 돌아보면, 좀 전에 보았던 둥근 바퀴를 어어 놓은 막대기 위에 길로 녀석이 있다.

다시금 눈을 고쳐 떠 보지만 길로 녀석이 분명하다.

더욱이 바퀴 옆에 빈 물지계가 보이지 않는가?

짱긔- 복동에게 뽀긔를 잊지 않고 스쳐가는 한길로.

이야- 소독차를 쫓듯 복동에게서 한길로의 자전거로 옮겨가는 꼬마 녀석들.

귀신에게라도 홀린 듯 어느새 사라져 버린 한길로의 자전거를 한참동안 바라보는 복동.

4. 저갓거리 오전.

급격한 문화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복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허어- 허어-” 탄식을 되새긴다.

이때, 저갓거리 한 복판에서 들려오는 신명나는 풍물패의 장단.

“놀랍도다 열흘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가다니” 라 적힌 이채로운 현수막 아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있다. 어느새 구경꾼들에 섞여 뺄죽- 고개를 들이미는 복동.

순간, 크악- 절로 벌어지는 복동의 입.

세상에- 아까 보았던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지금, 한 대도 아닌 수 십여 대의 새 자전거가 미인 대회에 미녀들처럼 번쩍이는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은가?

어안이 병병한 복동 옆으로 근엄하게 갓을 쓴 촌로가 한마디 거들며 나서고

촌로1 오호.. 저게 대체 무엇이요?

촌로2 열흘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이 기차지 뭇이겠소?

촌로1 오라.. 저것이 말로만 듣던 기차로세-

탁- 무릎을 치는 촌로1.

생경한 것에 호기심은 있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저마다 중얼대기 바쁜 구경꾼들 앞으로 사람 좋은 인상을 지으며 나서는 사장.

사장 자..자 껌떡지들 마시고 이쪽으로 가차이들 와서 귀갓들 허시오
요것이 바로- 조선팔도에 새바람을 몰고 온 자. 전. 거. 올시다-
자- 요 자전거를 한 번 타보실 용감한 분 어디 계시오?
개업 기념으로다 누구에게든 시승의 기회를 드리오
자- 자전거 타 보실 용감한 분?

귀청 따갑게 울리는 사장의 선전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저도 모르게 스윽- 핸들을 쥐고 있는 복동.

순간, 찌릿- 손끝에 전기라도 통하는 듯 묘한 기분에 서둘러 손을 떼다.

이상하리만큼 적막한 분위기에 주위를 둘러보는 복동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동에게 모여 있다.

헤- 녀살 좋게 웃는 복동.

cut to

핸들을 부여잡고 달달달- 떠는 손.

자전거에 올라타 안절부절 못하는 복동이다.

선뜻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 진귀한 볼거리에 한 마디씩 훈수를 두고

자전거 뒤를 부여잡고 복동의 귀에 속삭이는 사장.

사장	걱정할 것 없네
	발로 요 페달을 힘차게 돌리기만 하면 된다네-
복동	정말 이것만 돌리면 되요?
사장	그렇다니까.. 자, 출발 해 보자고..

허리를 곧추 세운 어정쩡한 자세로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는 복동.

비틀비틀- 서서히 달리기 시작하는 자전거에 오- 탄성을 내지르는 사람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에 들뜬 복동이

사장	오호- 처음 치고 잘 타는데?
----	------------------

헤- 흥분을 주체 못하고 점점 바빠지는 페달.

급기야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전거에 끌려가는 사장

사장	어.. 어- 천천히 천천히 거기 브레이크를 잡고..
복동	예?
사장	거기 있잖아- 브..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으라고

브레이크? 뭘 말인지 페달을 더 빨리 돌리는 복동.

결국 사장의 손에서 이탈해 뱅글뱅글- 저잣거리를 쭈시며 폭주하는 자전거

복동	어.어어.... 비켜요 비켜--
----	-------------------

“어이구” 사람들 사이를 십자로 요리조리 가로지르고 아찔하게 좌판을 스쳐 지나더니 으아-- 팡- 닭장에 처박히고 마는 복동.

날벼락에 집을 잃고 푸드덕 푸드덕- 성화를 내는 닭.

휘이잉- 바람이 베개 속으로나 쓸법한 흰 털을 쓸고 가자, 복동을 향해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죽은 듯 큰 대자로 누워 두 눈을 꼬옥- 감고 있는 복동을 등그렇게 에워싸고 내려다본다.

사장 어이, 이보게 젊은이?

대답 없는 복동 위로 “어머, 죽었나봐” 누군가의 애끓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순간, 번쩍- 복동이 눈을 뜨자 어어- 화들짝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
꽃잎처럼 동그랗게 누운 사람들 가운데 암술대처럼 우뚝- 일어서는 복동.
새로운 세상에 개안을 한 표정이다.
어느덧 달리는 쾌감에 사로잡혀 버린 복동이.

5. 복동 집 저녁.

가마솥을 열자 쉬이익- 화면을 뒤덮는 수증기.
막 삶은 기름진 수육을 도마에 올려놓고 스윙-스윙- 먹기 좋게 자르는 봉선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엌세간을 다룬다.

이미 탁주 몇 잔 걸친 듯 불그스레한 아버지 옆 새색시처럼 다소곳 앉아 있는 귀동(22세/복동 형)
아버지는 뭐가 그리 좋으신지 석차가 적힌 성적표를 한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베시시- 웃는다.
아버지 앞으로 수육을 가져다 놓는 봉선.

봉선 어휴- 아버지 이제 그만 보세요
 그거 안 본다구 일등이 이등 되나요?
 만날 하는 일등 큰오빠도 이제 지겹겠네? 그치?
아버지 어허- 그놈의 입방정..

봉선이 가져다 놓은 수육을 큰아들 앞으로 밀어놓는 아버지.

아버지 식기 전에 어여 들어라.. 공부 허는 놈이 고기를 먹어야 머리를 쓰지..

점잖기만 한 귀동에게 일부러 말을 건네는 봉선.

봉선 큰 오빠도 한 잔 하지 그래?
아버지 그래.. 너도 한 잔 해
 아, 사내놈은 술도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게야
귀동 좀 피곤 해서요
아버지 그러니까 한 잔 해야지
 한 잔 주욱 비우면 싹 풀릴게다

넘치도록 채워주는 잔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귀동.

봉선 아버지, 싫단 사람 말고 저 한 잔 주세요.
아버지 어허.. 이 녀의 가시나가..
 자- 쪽 비워라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며 쓴맛에 인상을 구기는 귀동
어찌됐던 자신의 뜻대로 잔을 받아든 아들을 흡족하게 지켜보는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더니 갱지로 칭칭 둘러 감은 뭉치를 턱- 내놓는다.

봉선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넘치는 호기심에 슬쩍- 열어보면 뽁뽁이 묶여있는 지전이다.

봉선 (놀라) 아버지? 삼신당 밭 파셨어요?

허엄- 술잔을 쓰게 들이키는 아버지.

아버지 세상이 전부 왜놈들 것이 됐네 어찌네 말이 많지만
 너는 암 생각 하 덜 말고.. 너 허던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땅에 사는 놈들이 다 조선놈들 인데 무신..
 경성제대 졸업만 해봐라- 어디다 갖다 대도 델 만하지..
귀동 등록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뭐 하러 벌써 이러셨어요?
아버지 어차피 때 되면 내야 될 것을 뿔..

수육을 입에 잔뜩 구겨 넣고 못 마땅한 표정으로 구시렁거리는 봉선.

봉선 꼭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건 빨리 준비 한다니까..

스윽- 돌아보는 아버지의 시선에 탄창을 부리다 타이밍 좋게 들어오는 복동을 보고 뛰어나가는 봉선.

복동 다녀왔습니다-
봉선 작은오빠! 배고프지? 어여 올라와
복동 어? 고기다 고기.. 오늘 무슨 날이야?
봉선 (아버지 눈치 보며) 날은 날이지..
아버지 (한잔 들이키며) 복동이는 손에 흙 묻힌 김 에 뒤 짝에 뱃단부터 치워라
복동 예.

부담스러운 귀동의 얼굴을 보며 여전하시지? 라는 표정으로 찡긐- 눈웃음을 보내는 복동.
아버지는 조심히 접어 뒀던 성적표를 다시 손바닥에 펼쳐 놓고 들여다보신다.

6. 뒤 뜰 저녁.

휘영청- 달님에 의지해 차곡차곡 벚단을 쌓아 올리는 복동.
으렛차- 기합과 함께 마지막 단을 마무리 하고 털썩- 폭신한 짚 풀 위에 팔을 베고 눕는다.
훈훈한 짚 풀 냄새에 과묵혀 소금 알갱이 같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복동.
스윽- 스윽- 어느새 별자리에 선이 그어지더니 자전거를 만들어 내고 헤- 저도 모를 미소와 함께 허공
에 다리를 들고 페달을 돌리듯 혼돈다.
슈웅- 밝은 빛을 뿜어내며 밤하늘을 달리는 자전거.

off)봉선 열씨구- 달밤에 널뛰는 건 봤어도 이런 건 처음 보네-

부스스- 설탕가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자전거.
허공에 두 다리를 들고 있다 후다닥- 자세를 바로 잡는 복동.

복동	으휴- 놀래라
	봉선아, 오빠 심 약한 거 알면서 이러니?
봉선	쳇, 보름달 보니 시집간 숙희 생각이라도 나나 부지?
복동	숙희는 무슨.. 아니야
봉선	아니긴 뭘 아니야?
복동	아- 아니라니까-
봉선	그럼 뭘테?

뻔히 쳐다보는 봉선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지

복동	 너 자전거라고 들어는 봤나?
봉선	자전거? 신작로에 굴러다니는 둥그런거 말이야?
복동	으응, 그래 그거 그거
봉선	자전거 때문에 그 방정을 떨고 있었던 거야?

한심하게 눈을 흘기는 봉선을 머쓱하게 보는 복동.

복동 왜?

한 참을 즐기다 복동을 쿠욱- 찌르며 까르르- 웃는 봉선.

봉선 근데, 고거 신기하기는 되게 신기하더라?
어떻게 바퀴를 타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볼수록 신통방통해
복동 (아군을 만난 듯) 그렇지? 그렇지?
타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넌 모를 거다
봉선 오빠, 자전거 타 봤어?
복동 그러엄- 타 봤지
봉선 정말? 어땠는데?
복동 음.. 나한테.. 날개가 달린 것 같았어
(두 팔을 펴덕이며) 날개가 생겨서 막- 날아가는 그런 기분.
봉선 나도 타보고 싶다 자전거
이참에 아버지한테 하나 사달라고 할까?
복동 그럴까?

순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남매.

복동/봉선 (어림없지..) 에이...

나란히 짚 풀 위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복동과 봉선
스윽- 어느새 스크린처럼 펼쳐지는 별자리 자전거

7. 꽃길 아침.

흔들흔들 춤을 추는 들꽃들.

물지개를 지고 잔뜩 뒤를 경계하며 걷는 복동.

행여 오늘도 거래처를 뺏길까 복동의 다리는 바쁘다.

이때, 휘이잉- 뒤통수 쪽으로 을씨년스레 불어오는 바람.

혹시? 획-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허리, 들꽃만이 나 이쁘지? 춤을 추고 있다

후- 심기일전, 물지개를 고쳐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떼어 보지만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뒤통수에

철렁-철렁- 물통을 뛰어 넘는 물까지 애달게 복동의 속을 삭인다.

순간, 띠링- 띠링- 또렷하게 들려오는 종소리.

찌릿- 돌부처처럼 뻗뻗하게 굳는 복동.

보면 복동을 잡아먹을 듯 쏘살같이 달려오는 한길로의 자전거!

에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땀다 달리기 시작하는 복동.

허나 가열 차게 달리는 복동의 다리가 무색하게 금새 좁혀지고 마는 거리.
 도망치는 쥐를 노리는 샅처럼 복동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한길로.
 철렁 철렁 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자전거에 질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 달려보지만
 어느새 툭- 물지계를 밀치고 지나가 버리는 한길로.
 어어- 균형을 잃고 방죽 밑으로 테굴테굴 굴러 떨어지는 복동.
 유유히 떨어지는 한길로의 자전거를 멍하니 바라만 본다.
 쿵- 뒤늦게 굴러 오더니 바위에 박살나는 물통.

8. 작은 방 새벽.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는 복동.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귀동역시 아직 잠이 들지 않았는지 슬며시 눈을 뜬다.

귀동	너 요새 무슨 일 있나?
복동	형, 아직 안 잤어?
귀동	옆에서 이 난리를 치는데 너 같으면 자겠니?
복동	(등을 긁으며) 이가 있나?
귀동	무슨 일이야? 말해봐..
복동	(바짝 붙으며) 형, 자전거 알아?
귀동	자전거?
복동	응.
귀동	서재필 선생이 타신 이후로 간간히 굴러다니더라.. 근데 왜?
복동	으응..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게 말이지.. 으응..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지게도 하나 더 실을 수 있고 물도 더 빨리 댈 수 있잖아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거고..
귀동	하하.. 자전거 때문에 몇날 며칠을 그렇게 안달 한 거야?
복동	아니.. 꼭 그렇다 기보다..
	형? 형이 아버지한테 얘기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귀동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나라고 별수 있을 것 같아?
복동	하긴.. 그렇지.

그제야 단념한 듯 새우처럼 모로 누워 잠을 청하는 복동이.
 동생을 바라보는 귀동의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하다.

9. 복동 집 뒤뜰 오후

물지계를 지고 땀에 흠뻑 젖어 들어오는 복동이.
물지계를 벗어 던지자마자 두레박부터 찾아 몸에 물을 끼얹는다.
이때, 땀을 식히는 복동을 잡아끄는 봉선.

복동 야아- 왜 그래?
봉선 잠깐 따라 와봐
복동 아니 뭘데 그래? 땀 좀 닦고..
봉선 글썽- 빨리 와 보라니깐..

봉선에게 끌리다시피 뒤뜰로 잡혀오는 복동이.
보면 귀동이 떠억- 하니 서있다.
마술사를 돕는 미녀 도우미처럼 나란히 복동이 앞에 서는 귀동과 봉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복동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순간, 가려진 짚단을 열자 짚- 마법처럼 나타나는 자전거!
복동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복동 아니.. 이게 뭐야?
봉선 뭐긴 자전거지, 보고도 모르냐? 큰 오빠가 주는 선물이야-

믿기지 않은 듯 귀동을 보는 복동.

복동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봉선 큰 오빠가 무리 좀 했지
복동 형 혹시 공납금으로 산 건 아니지?
귀동 자전거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벌어서 갚어
복동 아버지 아시면 나 때려죽일 거야
봉선 걱정 붙들어 매서 아버지한테 비밀이니까
복동 그래도 어떻게..
귀동 뭐해? 그렇게 자전거 자전거 타령을 하더니..
어서!

복동 앞으로 자전거를 가져다주는 귀동.

속삭이듯 가까이 다다가 스윙- 프레임을 어루만지는 복동.

봉선 오빠? 언제?
 맘에 들어?

새 친구를 만나 악수하듯 페달을 손으로 잡아 돌려보는 복동.
지이잉- 지이잉-- 묵직한 소리로 화답하는 영국제 트라이엠프 자전거
자전거를 앞에 놓고 배부른 듯 서로를 바라보는 형제들.
이때- 정적을 깨는 아버지의 가르릉- 기침소리.
재빠르게 벚단으로 자전거를 덮는 형제들.

아버지 니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귀동/복동
봉선 땀뻘이 산에서 내려왔는지 부엌을 죄다 엮어놨지 뭐예요
 분명 이 쪽으로 도망갔는데...
귀동 ... 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어힘.. 저녁 다 되가는데 밥 아직 멀었냐?
봉선 예. 다 됐어요. 가세요 아버지-
아버지 (복동을 발견하고) 복동이 이눔아 넌 들어왔으면 쫌이나 말 것이지
 여기서 뭐하구 있어?
복동 예- 갑니다요

후- 눈을 맞추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형제들.

10. 내리막 석양

이야- 복동의 허리를 부여잡고 환호성을 지르는 봉선.
바람을 가르며 양쪽으로 난 꽃길을 시원스럽게 달리는 복동의 자전거.
축하라도 하듯 하늘 가득 꽃가루를 쏘아 올리는 들꽃들.
복동 역시 자신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더욱 페달을 밟는다.

봉선 오빠, 너무 조오타- 이야 --
 근데, 자전거는 언제 배운 거야?
복동 뭐라고?
봉선 자·전·거- 언제· 배웠·냐·고 ?
복동 밤마다- 머릿속으로 연습 했지--

봉선 뭐?

들녘을 신나게 달리는 복동의 자전거.

11. 마당 새벽.

멀리 소쩍새의 울음이 간간히 들려오는 짙은 새벽.
빼이익- 누가 볼세라 잔뜩 팔팔에 힘을 주고 나오는 복동.
큰방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풀벌레 우는 소리와 박자를 맞추고
마당 한 복판에 찌익- 오줌을 싸는 복동.
그 새를 못 참고 종이 쭉이는 듯 소풍 전 날 아이처럼 살금살금 뒤뜰로 돌아간다.
벚단을 치우고 자전거를 어루만지는 복동.
세상을 다 가진 듯 한 미소가 절로 그려지는 복동의 얼굴.
행여 아버지가 잠에서 깨실까 조심스레 마루에 오르는 복동이
순간, 눈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신발.
아버지의 구멍 나고 헤어진 신발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는 복동.
신발 구멍 사이로 보이는 맑은 보름달.
마루에 앉아 푸드드드-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를 듣는 복동

12. 몽타주 시퀀스

경쾌한 음악 선행되며 펼쳐지는 시퀀스

들길

전원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들길.
일하는 농부들에게 밀짚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여유를 부리며 느긋이 들길을 달리는 한길로.
띠링- 띠링- 청풍명월 같은 종소리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한 번 더 그 청량감을 맛보려 종을 누르려는 순간, 띠링- 띠링- 울리는 종소리.
어라? 손도 대기도 전 종이 울릴 수는 없을 터
귀를 의심하듯 핸들에 달린 종을 가웃이 보는 한길로.
이때, 띠링 띠링 띠링-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종소리.
헉- 뒤를 돌아보면 한 눈에 화악- 들어오는 복동의 자전거.
성큼- 성큼- 다가오더니 어느새 한길로를 슈웅- 추월해 버린다.
잔뜩 인상을 구기는 한길로에게 쫓긋- 여유의 미소를 보내며 미끄러지듯 가는 복동.
멀어져가는 복동에게 원조 자전거의 자존심이 상한 듯

핸들을 째- 움켜쥐고 힘껏 페달을 밟는 한길로.
 이내 복동 옆을 파고들어 눈을 맞댄다.
 빠르게 페달을 젓는 다리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깨진 앞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한길로.
 곧 속도를 올리더니 복동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복동 역시 승부근성에 발동이 걸린 듯 힘차게 페달을 밟아 다시 한길로를 앞지른다.
 이대로 질수 없는 것, 온 몸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죽을힘을 다해 복동을 따라 잡는 한길로.
 복동을 잡아먹을 듯 눈을 부라리고
 초록으로 넘실대는 들판, 음머- 우렁찬 황소의 웅원을 받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는 복동과 한길로.

물독 바닥 시아

썩- 시원스레 물을 붓는 복동.
 썩- 물을 쏟아 붓는 한길로.
 썩- 썩- 물 독 하나를 두고 경쟁적으로 물을 들이부어 대는 복동과 한길로.

복동 집

시원한 평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가족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싱글벙글 인 복동의 얼굴.
 이때, 허벅지를 찌르며 눈치를 주는 봉선.
 보면 부처님 눈으로 아까부터 복동을 내려다보고 계신 아버지.
 만찬을 부리며 한 움큼 보리밥을 밀어 넣는 복동이.

너릿 재

옆치락뒤치락- 고개 초입에 들어서는 복동과 한길로.
 경사진 너릿 재 언덕을 박차고 올라가는 라이벌
 평지와는 현저히 다르게 더욱 하체에 힘이 필요한 오르막길에 어느새 무거워지는 다리.
 더 이상 페달을 밟지 못하고 점점 뒤쳐지는 한길로.
 이를 앙 다물고 페달을 내리찍듯 밟는 복동.
 안되겠는지 에라이- 물지게를 벗어 던져 버리는 한길로.
 한 참 가벼워진 무게에 앞으로 나가보려 하지만 좀처럼 여의치 않고
 반면, 물을 가득 싣고서도 경사진 언덕길을 쭉- 쭉- 차고 올라오는 복동.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철퍼덕- 나자빠지더니 급기야 입에 거품을 무는 한길로.
 언덕과 한 판 승부를 벌이듯 죽을힘을 다해 페달을 돌리는 복동.
 끄응- 끄응- 그만하면 내릴 때도 됐건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 씩 조금씩 언덕을 정복해 가는 복동.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언덕 9부 능선을 통과하고
 으으악- 마지막 힘을 뿜어내더니 드디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정상에 올라선다.
 너릿 재,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전원의 풍경들.

곧 오르막의 고통을 보상이라도 하듯 시원하게 붙어주는 바람.
내리막길의 속도를 한껏 즐기며 재를 내려가는 복동.

13. 저잣거리-포목전 오전.

썩아- 여유 있게 물을 붓는 복동.
포목 집 여주인이 건네는 돈을 받고 넙죽- 인사한다.

복동 감사합니다.

몽당연필을 인주 찍듯 혀에 가져다 대고 꼬질 한 수첩에 기록된 공란에 찌익 X를 긋는 복동.

여주인 그 자전거가 용허네 용해
 이러다 복동이 총각 금방 부자 되겠어
 빨리 장가가야지?
복동 장가라뇨? 아직 올 형도 안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홀썩- 자전거에 올라타는 복동.
절로 나오는 콧노래를 흥얼이며 기분 좋게 저잣거리를 달린다.

14. 신발 가게 오후.

한 눈에 봐도 튼튼하고 멋스러워 보이는 가죽 신발이 진열된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우는 복동이

복동 계세요. 계십니까?

안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는 대머리 주인.

주인 예~ 뭐 찾으시는 거라도?
복동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거 주세요!!

오랜 시간 눈 여겨 보았던 듯 자신 있게 외치는 복동.

주인 어이구 귀야- 거 귀청 떨어지겠소

총각이 신으시게?
복동 아노. 아버지가 신으실 겁니다.
주인 그래요.. 그래..
근데 저게 값이 꽤- 나가는데..

못 미더운지 휘- 복동의 차림을 위, 아래로 살피는 주인.
척- 그 앞으로 당당히 돈을 내미는 복동.

복동 그건 문제없어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환하게 밝아지는 주인.

cut to

빼다지에 고개를 넣고 신발을 찾는 주인.
마음이 급한 복동도 어깨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주인 아버지 발 자 수가 어떻게 되실까?
복동 어.. 그러니까.. 되게 커요.
(손을 펼쳐 보이며) 어.. 한 이만큼.
주인 아이구.. 꽤 크시구먼.
복동 해해.. 예.
주인 (노래하듯) 자아~ 찾아 봅시다- 어디에 있느냐..
원래 고만한 발은 흔치 않아서 물건이 없는데..
얼마 전 코쟁이 선교사들 주문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여차... 여기 있네.... 자 한 번 봐요.

가족신을 받아 이리 저리 살피는 복동.
순간, 습관처럼 형의 1등 성적표를 보다가 복동이 선물한 신발을 신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버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벌써부터 아버지의 기쁜 얼굴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복동.
튼튼하게 만들어진 가족신을 보자 절로 웃음이 난다.

cut to

종이에 잘 말아 끈으로 묶은 신발을 잊어버릴라 가슴에 꼭 품고 나오는 복동.
순간, 아찔해 지는 눈.
바라보면, 자전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전거가 없다!
가게 앞을 살살이 살펴보지 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전거.

복동 아저씨! 아저씨!!

제 자전거 못 보셨어요? 예?
 주인 자전거라니? 무슨 자전거?
 복동 제가 여기 세워 놔놓아요!
 주인 아니.. 난 모르겠는데..
 복동 어떻게 이럴수가..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복동.
 가게를 뛰쳐나가는 복동을 황망하게 바라보는 아저씨.

15. 장터 오후,

실성한 사람 마냥 장 이곳저곳을 헤매는 복동.
 자전거를 봄직한 좌판 상인들에게 통사정을 하며 물어보지만 자기 장사에 바쁜 듯
 손 사례를 치며 냉담하기만 하고 여기 저기 정처 없이 기웃거리는 복동을 보는 누군가의 시선.
 이웃 심침지와 나주댁이다.

나주댁 저기 복동이 아니에요?
 심침지 어, 복동이 놈 맞구만.
 나주댁 근테, 왜 저러고 있어?

툑- 툑-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혀 휘청거리는 복동.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각을 상실한 듯 떠돌아다니는 장 한가운데 한없이 서있는 복동.
 붉어진 눈시울에 어느새 눈물이 가득 차오른다.

16. 복동 집 앞 저녁.

가죽신을 가슴에 품고 마을 어귀에 접어드는 복동.
 고개를 들어보면 집 앞에 아버지와 봉선이 나와 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복동.
 이때- 봉선이 말릴 새도 없이 펑-- 복동의 얼굴을 강타하는 아버지의 주먹.
 빠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복동.

아버지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죽어- 죽어 이 새끼야--

팔, 다리를 부여잡는 봉선이를 뿌리치고 넘어진 복동을 후려치는 아버지.

아버지의 발길질에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 복동.
급기야 방안에 틀어 박혀 있던 귀동까지 뛰쳐나와 아버지를 틀어잡지만
이 역시 아버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손에 잡히는 대로 복동을 후려펜다.

귀동 아버지- 그만 하세요-
 다 제 잘못 이에요--

짐승이 숨을 넘기듯 꺼억- 꺼억- 가 뿐 숨을 토해내는 복동.
보다 못한 이웃들이 달려들어 겨우 아버지를 뜯어 놓고

심철지 선양이.. 그만하게 그만해 이 사람아-
 이려다 애 죽겠네..
아버지 놈, 이거 못 놔!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복동을 붙잡고 울부짖는 봉선.
복동이 선물하려 했던 가족신을 주워드는 아버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찌익- 찢어 발로 밟아 뭉개버린다.
고막이 터졌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진공상태, 분노에 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동.
주르르- 핏물에 섞여 귀를 타고 흐르는 복동의 눈물.

17. 나주 맥 저녁.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쿵각- 쿵각- 막걸리를 들이키는 아버지.

심철지 어이,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자식한테 그래야 쓰나?
 아, 아닌 말로 어디 복동이 놈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는가?
 저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아버지 네 이 놈의 자식을..
심철지 어허이.. 이 사람.. 이보게 선양이..
 자네 왜 이러나.. 이 까막골에서 자식농사 자네보다
 더 잘 지은 사람 어딴다고 그래?
 귀동이야 총한 놈이라 대학이야 내년엔 가면 되잖어
아버지 터진 입이라고 말 한 번 편하네..
 그것이 어디 개구락지 해엄치는 일인지 알어?
 30년 머슴살이에 내 것이라고는 삼신당 밑에 자갈밭 한뼘 가져왔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엉?
 될 놈 한 놈만이라도,.. 될 놈 한 놈만이라도 만들어볼라고--

한 평생 뻘뻘하게 갈아 논 그 밭 팔아서 겨우 그 돈 만들었어--
근데 뭐? 내년에 또 보면 돼? 허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전자체 들이키는 아버지.
답답한 듯 곰방대를 뽕뽕 빠는 심철지.
문 밖, 아버지의 뉘두리를 들으며 기대 서 있는 귀동.
오늘따라 기울어진 초생 달이 더불서럽기만 하다.

18. 복동 집 밤.

검붉게 부어오른 상처로 가득한 복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봉선.
붉은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생긴 입을 조금씩 움직여 보는 복동.

복동	보.. 봉선아..
봉선	오빠? 이제 정신 들어?
복동	 봉선아?
봉선	응.. 오빠 나 여기 있어..

순간, 감정이 북 받히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봉선.

복동	나... 나도.. 형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
----	---

질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봉선.
통통 부어올라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르는 복동의 눈두덩이 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19. 복동 집 새벽.

줄줄줄줄- 처마를 타고 쏟아지는 빗물.
어둠 속,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있는 복동이.

기억

자전거를 잃어버린 장터를 터벅터벅 걷는 복동.
띠링-띠링- 종소리와 함께 복동 옆에 나란히 속도를 맞추는 한길로.

한길로	너 자전거 잃어버렸다며?
-----	---------------

복동
한길로 그만 잊어라
이 좁은 평택에 자전거가 몇 대나 된다고
언놈이 배짱도 좋게 타고 다니겠냐?
이미 경성으로 팔아 치워도 벌써 팔아 치웠지..

순간, 번쩍 뜨이는 복동의 눈

cut to

새벽녘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복동
보면 곤히 잠들어 있는 귀동이다.
한 없이 밀려드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복동의 목소리.

복동 형... 미안해..

빼이익- 조심스레 열리는 작은방 문.
허리춤에 작은 봇짐을 매단 복동이 가슴팍에 무언가를 꼬옥- 감추고 나온다.
푸드드-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아버지 방 앞에 서는 복동.
가슴에 안고 온 형짚을 풀어 내려놓는다.
보면, 아버지가 찢어버린 가족신
마치 새것처럼 잘 꿰매져 있다.

20. 경성거리 오후.

쨍- 쏟아지는 강렬한 태양.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인 것처럼 이곳저곳 신식 건물들이 증축되고 있고 우마차와 인력거 전통복식에서 신식 양장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경성.
뿌우우- 기이한 파열음을 내뿜으며 지나는 전차 뒤를 쫓는 꼬마들.
전파사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간드러지는 여가수의 노래까지, 도무지 낯설기만 한 광경에 기가 질린 듯 어안이 병병한 복동.
땡- 날카롭게 경적을 울리며 위험천만하게 스쳐가는 클래식 자동차에 단 번에 길가로 내몰리는 복동.
자전거를 찾겠다는 용기가 퇴색되어 갈 찰나 복동의 시선을 잡는 무언가.
보면 순식간에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는 자전거. 바로 복동의 트라이엄프 자전거다!
옹거니 맘을 다부지게 먹고 쫓아 달리는 복동.
모퉁이를 돌아 사거리에 이른 복동.
황급히 방향을 두리번거리면 어느새 맞은편 모퉁이로 들어가는 자전거.

틀림없다. 틀림없이 복동의 자전거다.
오로지 자전거를 찾겠다는 생각 뿐, 쿵- 순식간에 튀어 나오는 자동차에 들이박혀 고꾸라지는 복동.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달리는 복동.
허억- 허억- 모퉁이를 돌아보면 감쪽같이 사라진 자전거.
흐르는 빛처럼 아른거리는 거리.
순간 초점이 맞혀지면 저만치 가고 있는 자전거.
죽을힘을 다해 자전거를 따라잡는 복동.
덥썩- 자전거를 덮친다.

복동 이 도둑놈의 새끼!!
 내 자전거 내놔!!

느닷없는 복동의 우격다짐에 황당한 사내.

사내 먼 소리야?
 야 너 뭐야?
복동 뭐긴 이 자전거 주인이지
 경성으로 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좋은 말로 할 때 내 자전거 내놔
사내 야- 이게 어떻게 니 꺼야?
 이.. 이 미친놈 아니야?
복동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 자전거는 손잡이에 가죽이 덧대져 있어
 (종 울리며) 귀 있으면 들어봐 이래도 오리발이야?

복동의 막무가내에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사내.

사내 그럼 저건 뭐냐?

사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복동.
순간 휘둥그레지는 복동의 눈.
띠링- 띠링- 똑같은 종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는 자전거.
굽은 손잡이에 덧댄 가죽 까지 꼭 복동의 자전거다.

사내 그럼 저것도 니것 이겠냐?

보란 듯 지나가는 똑같은 트라이엄프 자전거

복동 아.. 아니야.. 분명이 내꺼야 내꺼라구
 사내 아.. 이 촌놈의 새끼
 어디서 병신같이 자전거 잃어버리고 생떼야

와락-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자전거를 끌어안고 악다구니를 쓰는 복동.

사내 이 새끼가 이거..

퍼억- 복동을 쥐어 뺏는 사내.
 육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휘이익-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각소리.
 똑각 똑각- 긴 칼을 찬 순사가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다.
 느릿느릿 걸어오는 순사의 자세가 외려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은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구경하던 이
 들을 포함해 사내까지 슬그머니 꿈무늬를 뺏다.
 도망치는 이들을 조소하듯 거드름을 피우며 복동을 지나쳐 가는 순사.
 허탈하기만한 복동의 얼굴.

21. 시장통 오후.

파는 이들과 사는 이들의 흥정으로 활기 넘치는 시장통 복판을 걷는 복동
 생경한 서양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을 만도 하련만 딱히 갈 곳 없는 복동은 정처 없이 떠돌 뿐이다.
 이때-

off) 저 놈 잡아라- 저 놈 잡아

있는 대로 소리를 내지르는 상인
 보면 웬 거렁뱅이 두 녀석이 상인의 전대를 후려 복동을 스치고 내뺏다.
 본능적으로 녀석들을 쫓아 달리는 복동.
 그 옆으로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사내(김억대)가 괴한을 쫓아 복동 옆을 나란히 달리더니 곧 추월해 버
 린다. 달리기라면 야 그 누구에게도 저 본적 없는 복동 이지만 억대의 주력은 다른 차원이다.
 빠짝 거리를 좁혀 오는 복동과 억대의 추격에 녀석들은 두 갈래로 길을 나누어 도망치고 마찬가지로, 복동
 과 억대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명씩 쫓아 달린다.
 영양을 잡는 범의 사냥을 보는 듯 백 보도 못가 복동에게 덤미를 잡히는 녀석.

거렁뱅이 형- 한 번만 봐주세요 잘 못했어요

보면 아직 옛되어 보이는 소년이다.

복동 임마- 잘 못할 일을 왜 해?
전대 어딴어?
녀석 저한테 없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뛰기만 했어요

녀석의 몸을 뒤져 보는 복동. 정말 전대는 보이지 않는다.
울상이 되어 복동을 바라보는 녀석.
순간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복동을 밀치고 도망치는 녀석.
한 참을 내뺀다 복동을 돌아보고 주먹 감자를 먹이더니 좋다고 도망친다.
허- 황당한 복동.

cut to

툑-툑-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예의 자리로 돌아오면 억대에게 꼼짝없이 뒷덜미를 잡혀 오는 다른 녀석. 벌써 몇 대 쥐어 터졌는지 눈두덩이 퍼렇다.
상인에게 녀석을 인계하는 억대.

상인 이 개 상열의 새끼-
너 같은 거지새끼들은 맞아야 돼

닥치는 대로 녀석을 후려치는 상인
일방적으로 터지는 녀석을 보다 못한 억대가 상인을 가로막고

억대 거 전대도 찾았고 이만하면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슈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녀석에게 달려들려다 억대의 기세에 눌러 멈추는 상인.

억대 가!

억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도 안 보고 도망치는 거렁뱅이

억대 여깁수-

툑- 상인에게 전대를 던지는 억대.
두툼한 다발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다 셈하는 상인.
찾아만 주면 톡톡히 사례할 것 같던 상인의 얼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억대와 복동을 떼어 버릴까 하는 표정이다.

상인 요기라도 하슈 들..

일환짜리 지폐 한 장으로 때우고 도망치듯 내빼는 상인.

억대 쳇, 고맙다는 소리 하든 주머니 찢어지는 가벼-
인심 한 번 박하네-

슬쩍- 억대 옆에 서서 손에 쥐어진 지전을 바라보는 복동
꼬르륵- 배가 요동친다.

22. 국밥집 저녁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국밥을 먹어 치우는 복동.

억대 거 안 뺏어 먹을테니 숨도 좀 쉬면서 드슈

고개 끄덕이는 순간도 아까운지 입 한 가득 밥을 밀어 넣는 복동

억대 아까 뛰는 것 보니 어지간히 힘깨나 쓸 것 같은데 밥이나 빌어먹고
사내 풀 한 번 좋시다- 거 부랄은 달고 다니우?

복동 국밥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다면 부랄이라도 맡길 지경이오

한 그릇 푹딱 비우고 억대의 국밥을 슬쩍- 보는 복동.

눈싸움 하듯 복동을 지긋이 보는 억대.

젖다는 듯 미련 없이 국밥을 복동 앞으로 밀어준다.

억대 국밥 한 그릇에 사내가 부랄을 다 맡기고
대장부가 야망이 그리도 없는 갑소?

복동 끓는데 항우장사 있소?
김형은 야망인지 뭇지만 먹어도 배부른지 몰라도 나는 한 끼만 끓어도
머리가 어지럽소

억대 많이 많이 드시오--
두고 보슈. 내 지금은 노름판에나 붙어서 고리나 뜯고 있소만
(주먹을 불끈쥐며) 세상이 언젠가는 김.억.대 내이름 석자 모르는 이 없을 것
이오

cut to

국밥집 앞에 마주 선 복동과 억대

억대 자전거 꼭 찾길 바라겠소
복동 그래야죠 .. 형씨도 그 야망 이루기 바라오. 잘 먹었소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멀어지는 복동.

억대 어이 형씨- 부랄 놓고 다니지 마슈!

씨익-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복동.

F.O

23. 신작로-인력거 대기소 오후.

F.I

경쾌한 음악과 함께 거침없이 신작로를 달리는 인력거.

사람이 끄는 것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에 바람에 날리는 중절모를 부여잡는 신사(안창남/조 선최초비행사)

끼이익- 깔끔한 정차에 넘죽- 친절한 인사까지, 타는 이의 기분을 단번에 좋게 만드는 인력거꾼.

세월이 제법 지난 듯 깔끔해진 입성의 복동이다!

복동 손님, 도착했습니다.
안창남 필경 늦는 가 했는데 자네 덕에 약속을 지키게 됐네-
 거스름은 넣어 두게 나
복동 감사 합니다-

흐뭇하게- 복동의 어깨를 격려하며 내리는 안창남.

순간, 안창남을 발견하고 물려드는 사람들.

행인 안창남이다! 안창남이야!!

앞 다투어 악수와 사인을 청하는 사람들을 마다않고 사람 좋게 대하는 안창남.

유명인 이었던가?

고개를 가웃하며 대기소로 들어서는 복동을 벨보이처럼 마중하는 측새 같은 사내(갑테/30대초반)

갑태 아따, 늦게 배운 도적질이 무섭다고.. 너 정허다이.. 몇 개째냐?
 복동 이제 여덟 개요
 갑태 오메, 야가 시방 촌놈 겁주네- 살살해라 어디 무서워서 살것냐?
 복동 형은요?
 갑태 아침부터 팔랑이 떨어져라 뛰어서 인자 시개여 시개
 아따 손님도 없고 장거리나 하나 걸리믄 쓰것는디...

이때, 대기소로 급하게 뛰어오는 손님 들.
 인력거를 줄지어 세워놓고 있던 가마꾼들이 일제히 자기 인력거로 “이리 오르십쇼” 호객을 하고

손님 용산연병장 좀 가주시겠는가?

순간, 일제히 고개를 절레- 절레- 내저으며 원래 자리를 찾아 가는 가마꾼들.

손님 그러지 말고 내 차대 넉넉히 챙겨 줄 터이니 가세나
 갑태 아이고- 고거 쪼까 벌어 불라다가 사람 죽을 일 있소

난감하기만한 표정의 손님들.
 사정 좀 봐 달라는 듯 목을 내놓는 손님 앞으로 불쑥 나서는 가마꾼.

off) 제가 갈게요

보면 복동이다.
 순간, 덩석- 복동의 팔을 부여잡는 갑태.

갑태 야가 지금.. 거가 어디라고..
 임마- 연병장 갈라믄 깔딱고개 넘어야되야
 거가 왜 깔딱고겐지 아냐?
 소도 깔딱 하고 자빠진다해서 깔딱고개여-
 복동 그래봤자 언덕인데요 뭘

24. 깔딱고개 오후.

고개 초입으로 들어서는 복동
 악명에 걸맞게 바위를 깎아 세운 것 같은 아찔한 급경사를 펼쳐 보이는 깔딱고개.

호락하게 정상을 내주지 않은 듯 짙은 안개까지 토해내고 있다.
 다리 힘이라면 물장수시절부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다는 자신감의 발로 인 듯
 초입부터 힘차게 박차고 오르는 복동
 후-후-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
 달구지도 쉬어가는 중간 턱을 씹 없이 통과해 오르는 복동을 진귀한 볼거리 인 양 구경하는 등산객들.
 후- 후- 호흡이 더욱 가빠지고 누적된 피로에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복동의 얼굴.
 풀린 다리에 현기증까지, 사물들이 아득하게 보인다.

손님 이보시게 켜창은가?

몸에 기운이란 기운은 다 빠져 버린 듯 대꾸할 힘조차 없는 복동.
 눈앞에 보이는 정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숫자를 중얼 이더니 팍! 지면을 박차고 튀어 오른다.
 고지전투를 하듯 숫구쳐 오르는 복동의 인력거.
 고향 언덕정상을 놓고 벌였던 한길로와 승부가 연상되는 듯 주욱- 주욱- 경사를 차고 오른다.
 숨이 턱까지 막혀오는 고통을 즐기기도 하듯 점점 더 뜨거워지는 복동의 땀대.
 으으아- 마지막 구부능선을 통과해 마침내 정상에 서는 복동.
 휘잉- 불어오는 바람이 격렬하고 순수한 청년의 투쟁심을 달래주고 비록 무모한 성취일지라도 숫구치는
 기쁨에 쾌재를 부르는 복동이.

25. 용산연병장 진입로

경성거리의 인력거와 차들을 모조리 가져다 놓은 듯 발 딛을 틈도 없는 진입로.
 연병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쏟아져 내리는 승객들에 전쟁 통이 따로 없다.

손님 이보시게 여기 내려 주시게

서둘러 차대를 치르고 인파에 파묻히는 손님
 대체 무슨 일인지 원초적 호기심이 드는 복동.
 인력거를 구석에 놓고 휘- 상황을 살피더니 옆 울창한 숲으로 쪽- 들어간다.

26. 용산 연병장 시퀀스

구룡

타닥- 심마니처럼 날래게 산을 타는 복동
 마지막 바위를 딛고 구룡 정상에 올라선다.

순간, 우와아-- 순식간에 복동을 덮칠 듯 달려드는 거대한 함성.
보면 드넓은 용산 연병장이 그 위용을 뽐내듯 당당히 펼쳐진다.
경성사람 모두가 모인 듯 너울대는 관중석의 위용에 단 번에 압도 되어 버리는 복동.

본부석

연병장 구석구석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본부석.
경주를 주최하는 요요기 상회 상인들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만원인 관중석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백발의 사내(야모토/50세/요요기상회 사장)
따분한 얼굴로 부채질을 하는 여자(나카타니 미키/29세/사계야 여주인)를 돌아본다.
한 눈에 사람을 호릴만한 요염한 미모의 미키.
열광적인 관중들을 등에 업고 야모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간부들.

간부1 사장님, 이 번 경주도 대 성공입니다.
 자전거 경주를 시작한 후 연일 최고 판매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경주를 판매 전략으로 활용하신 선견지명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간부2 저희 생산부는 공장을 세 배로 늘리고 매일 철야를 해도
 쏟아지는 주문 양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관중을 보며)조선인들 덕에 얼마나 더 날을 새야 될런지요 허허...

자화자찬의 농을 던지는 간부에게 한마디 쏘아 붙이는 미키.

미키 저들이 팔아주는 자전거로 당신들이 호례호식 할 텐데
 고객들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군요

썰렁해진 분위기를 무게감 있게 정리하는 야모토.

야모토 하핫! 그렇지, 다 우리 훌륭한 고객들이지
 하지만 열광하는 저들을 보자니 웬지 불안해 지는군.

이때-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팡파레
이화가 수놓아진 제복을 입은 사내(고종)가 시종들의 부축을 받아 본부석에 올라선다.
떠들썩하던 관중들이 일제히 예를 갖추고 고종의 손짓이 있자 비로소 이완되는 조선 관중들.

야모토 나라를 잃은 왕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미키 거세했다고 남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하- 너털웃음을 짓는 야모토 앞으로 다가오는 고종.
제복만 없다면 그저 처량하고 쇠약하기만한 늙은이다.
허리를 숙여 예를 올리는 야모토.

야모토 폐하, 순풍에 하늘도 청명하고 경주 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부디 이 번 경주에선 조선선수가 이겼으면 합니다.
고종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 할 것 같소?

마지막 힘을 모아 쏘아보는 고종을 한껏 비꼬듯 능청을 피우는 야모토

야모토 폐하, 저는 진심으로 조선선수를 응원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게 다물고 자리로 가는 고종.
본부석 총독부 관리들 역시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고 있지만 눈엔 업신여김이 가득하고

미키 호호.. 정말 잔인 하군요
이미 쓰러진 상대에게 숨 쉴 엄두조차 못 내게 하시니

씨익- 웃는 야모토.

경주장

뿔뿔바- 고적대의 박력 있는 행진곡이 연주되며 하나 둘 출전하는 자전거들.
순간, 우와- 함성이 터져 나오고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관중석.
자전거 경주의 열기를 말해주듯 형형색색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기생들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그야말로 흥분의 용광로다.

구름

순간, 짹- 복동의 눈에 포착되는 자전거.
쿵- 쿵- 어느새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가빠지기 시작하는 호흡.
확장 된 복동의 동공에 반사되어 보이는 자전거.
슈욱- 순식간에 복동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카메라.

경주장

척- 출발선에 앞바퀴를 정렬시키는 선수들.
'일미상회'라 적힌 운동복을 입고 호흡을 고르는 사내(병철/27세/일미상회)를 가리는 그림자.
보면 일본 일류선수 카즈라다.

카즈라 어이, 지난번처럼 넘어지지 말고 잘 쫓아와라

불끈- 카즈라에게 달려들려는 병철을 말리는 조선 선수들.

픽- 얇밋게 웃는 카즈라.

척- 화약총을 들어 올리는 심판의 손.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서로를 견제하는 선수들.

힘껏 잡아당긴 고무줄이 언제 놔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출발선에 모이는 시선, 시선들

탕- 적막을 깨우는 총성과 함께 대지를 박차고 튕겨 나가는 자전거.

우와아- 노도처럼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 관중들.

복동 역시 잡고 있던 바지춤을 파악- 움켜쥐고

복동의 시야- 슈우웅- 바람을 가르며 역동적으로 달리는 선수들

시간이 정지된 듯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여 지고

잇고 있었던 질주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쿵광- 쿵광- 미친 듯 요동치기 시작하는 심장.

잠들고 있던 또 다른 자아가 태동하듯 꼬억- 숨을 토해내지 못 하고 부르르- 떠는 복동.

순간, 다른 자아를 몰아내듯 후아- 한꺼번에 숨을 내뿔으면

후우욱- 복동을 집어 삼키듯 달려드는 관중들의 함성.

파바빳- 경쟁 선수들을 욱박지르며 선두로 내달리는 카즈라

질세라 카즈라를 바짝 위협하며 선두를 호시 탐탐 노리는 병철.

초반부터 벌어지는 박빙의 승부에 후끈- 달아오르는 관중석.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하고 피부세포 하나까지 경주에 몰입되어 있는 복동.

끈덕지게 카즈라를 따라 붙으려 안간힘을 쓰는 병철.

“힘내라 힘내라” 간절히 조선선수들을 목 놓아 응원하는 관중들

허나 경주가 계속될수록 현격히 드러나는 실력 차에 아~ 역부족의 탄식이 터져 나오고

이를 즐기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단독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카즈라.

관중들의 열광적 응원이 무색하게 싱겁게 끝나버린 승부.

‘조선 놈은 안돼’ 무언의 열패감이 넘쳐나고

후우- 고개를 떨어뜨리는 고종에게 비아냥거리듯 여유 넘치는 눈인사를 보내는 야모토

일본군가 풍의 위압적인 고적대의 축하 연주 너머 한숨으로 돌아서는 관중들.

구룡

황-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있는 복동.

27. 장충공원 오전

인력거 바퀴에 단단히 꺾어진 돌.

개점휴업을 작성하고 스탠드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누군가. 복동이다.

신사 광통관으로 빨리 가세나

무턱대고 인력거에 올라앉자마자 눈을 감는 신사

신사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복동은 그저 멍하니 앞만 보고 있다.

보면 줄을 지어 달리는 자전거들. 요요기 선수들에게 완패한 일미상회 선수들이다.

off)수하 자- 자- 열한바퀴 남았어요 열한바퀴!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그려지는 복동의 얼굴

가녀린 외모지만 목소리 한 번 웅골차게 선수들을 독려하는 처자(황수하/21세)가 눈에 들어온다.

쏟아지는 직사광선에 푹푹 찢는 습기.

선수들의 사기는 밀바다이다. 성의 없는 페달링에 결국 흐트러지고 마는 대열.

선두를 달리던 병철이 주저앉아 버리자 모두 뒤를 이어 나동그라진다.

황수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열 바퀴나 남았는데..
병철 오늘은 이만하자..

웁거니! 병철에게 동조하듯 추임새를 넣는 선수들.

황수하 삼촌 아시기 전에, 일어나서 열 바퀴 채워요
병철 헛! 열바퀴.. 말 한 번 쉽네-
 삼시 세끼 피죽만 쳐먹고 이 더위에 자전거 타는 게 쉬운 줄 아냐?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요요기 놈들은 삼시 세끼 고기반찬 나온다고
 그것도 소고기-
황수하 지금 고기 못 먹어서 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면 진거지 남자가 제제하게 반찬타박은.. 창피한 줄이나 알아요
병철 야- 그렇게 쉬우면 니가 타봐 니미럴-

더 이상 말해봤자 득볼게 없다는 듯 자전거를 내던져 버리는 병철.

멍하니 훈련을 지켜보던 애꿎은 복동을 화악- 제리더니 공원을 나가버린다.

마치 제 잘못된 것처럼 머쓱해 지는 복동.

이때- 인력거 안에서 강시처럼 벌떡 일어나는 신사.

신사 어이- 안 갈꺼야?
 광통관 가자구!! 광통관!!
복동 네에- 갑니다요

그제야 화들짝- 일어서 인력거를 잡는 복동.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면 화가 단단히 난 듯 땅을 차는 수하가 눈에 들어온다.
어느새 씨익- 미소가 그려지는 복동의 입

28. 일미상회 앞 오후

종로 한 구석에 위치한 일미상회.
보기만 해도 기름 냄새가 묻어 날것만 같은 자전거포다.
안과 밖 빼곡이 진열되어 있는 자전거들 앞으로 예의 선수들이 달구지에서 대형그라인더와 각종 선반기
계들을 내리고 있다.

선수1 아- 씨팔- 이 셋팅이 가져다가 뭐에 쓴다고..
선수2 국산자전거 만드신다잔어- 뭐해? 빨리 들어

궁시렁 궁시렁- 어쩔수 없이 대형 그라인더와 씨름을 하는 선수들.
순간,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왔다리갔다리 휘청 이는 그라인더.
이때- 무너진 한쪽을 번쩍 들어 올리는 누군가. 보면 복동이다.
복동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서는 그라인더.

29. 일미상회 오후

기이잉- 연삭기에 자전거 프레임을 가는 중년사내(황재호/49세/일미상회사장)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펼쳐진 설계도를 꼼꼼히 확인하며 프레임의 균형을 계산하고 조립한다.
완제품 일 때는 보이지 않던 부품 하나하나의 역할과 기능이 눈에 들어오고 빠끔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하.

수하 삼촌, 여태 여기 계셨어요?
 오늘 상공회가지는 날이잖아요
황재호 이런 이런.. 내 정신하고는..

지금 몇시냐?
수하 벌써 네시예요
황재호 잠깐만 기다려라 요것만 조이면 끝난다.

잡고 있던 나사를 조여 조립을 마무리 해가는 황재호

황재호 근데 넌 또 왜 우거지상이야?
수하 그럴 일이 있어요
글쎄- 만 날 지는 이유가 고기 못 먹어서 그렇대요.. 애들도 아니고..
황재호 허허.. 어차피 자전거경주라는 것이 애들의 스포츠 아니 더냐
수하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척- 조립된 자전거를 세워 보이는 황재호.

황재호 어떠냐?
수하 자전거 눈으로 타나요 다리로 타는거죠
황재호 허허- 너도 이제 잔차쟁이 다됐구나
(작업 토시 벗으며) 어여 서두르자

30. 일미상회 앞 오후

그늘에 퍼질러 앉아 낚시를 하는 선수들.

선수1 아야? 물 도 좀 먹어가면서 천천히 허
복동 켜칩니다.

보면 선수들이 해야 할 공기 펌프질을 복동이 대신하고 있다.

뚝뚝- 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는 복동

선수1 어휴 저 이쁜새끼 팔뚝 좀 보게- 힘도 좋네 힘도 좋아
선수2 야 이래도 될래나 몰라
선수3 뭘- 지가 하고 싶어서 한하는데 어떻게? 안 그래?
선수1 아야- 고 바람 다 넣었으면 저 바쿠 쌓아 놓은 것 보이지야?
그거 요 줄에다가 하나씩 걸어나라
복동 뎀-

제 일 내팽개쳐 놓고 길길대는 선수들.
순간,

off)병철 야- 지금 뭐하는 것이야?

화들짝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선수들.

선수1 어, 반장 그게 아니고.. 애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 혼자 막 하더라고
 그래서..
병철 그래서 뭐?
선수들
병철 잘 돌아간다 씨발- 별 희한한 것들 까지 다 설치고
 (복동에게) 야?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데 여기서 얼쩡거려?
 놓고 빨리 안 꺼져?

바퀴를 집어 던지려는 병철을 피해 줄행랑을 놓는 복동.
인력거를 끌고 황급히 내빼려는 순간

수하 저기요- 저기 가마꾼!

보면 수하가 복동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31. 신작로 오후

황재호와 수하를 태우고 신작로를 달리는 복동
부쩍- 늘어난 자전거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젊은이들은 어설픈 경주 흥내를 내며 거리를 달린다.
의식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복동.
그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수하의 얼굴이 여간 낯부끄럽다.

황재호 허허- 이제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네
 내달부터 자전거에 번호판을 달아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나
 지 놈 들이 자전거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욕시릴 놈들..
수하 자전거에 세금 까지 받아먹다니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예요?
황재호 나라도 통째로 집어 삼켰는데 뭘 못할라고..
수하 허긴 더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황재호 (설계도를 보여주며) 어떠냐?

수하 이러면 회전축에 힘이 안 받을 텐데.. 방향전환이 어렵지 않을까요?

흠.. 못내 아쉬움 섞인 눈으로 설계도를 내려다보는 황재호.

순간, 슈웅- 놀이기구를 타듯 중심이 뒤로 쏠리는 인력거

인력거가 비탈진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후- 후- 가파른 고개 길을 혼자도 아닌 손님까지 태우고 거침없이 차고 올라가는 복동

불끈 불끈 장단지에서 금방이라도 튀어 나올 것 같은 근육

쉽 없이 언덕을 차고 오르는 근성까지

안경을 고쳐 잡고 복동의 등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황재호

우연보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기시감이라도 느껴지는지 상기되는 황재호의 얼굴.

32. 일미상회 저녁

거리의 수은등의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상회 안.

차곡차곡 줄을 서 있는 자전거 사이 황재호 앞에 가까이 앉아 있는 복동 보인다.

문틈에 머리를 붙이고 안을 살피는 선수들.

선수1 뭐가 어떻게 되가는 거야?

선수2 글썽- 저 가마꾼 놈을 잔차쟁이를 시키겠다지 뭐야

선수1,3 뭐? 가마꾼을?

이때, 다리를 절룩이며 들어서는 병철.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찬다.

병철 개나 소나..

cut to

위엄이 베어 나오는 황재호 앞, 수줍게 앉아 있는 복동.

황재호 자네 달리는데 소질이 있더군

전에 운동 했었나?

복동 운동은요..뭘.. 고향에서 물지계를 좀 지었습니다요

황재호 허허... 물지계라.. 그래서 균형감이 몸에 배있었구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 보게

이 조선 땅에 자전거 경주가 시작된 게 올해로 오년이네

지금은 경성에서나 제대로 된 경주를 볼 수 있네만

앞으로는 팔도 어딜 가나 경주를 보게 될 걸세

지금 조선 땅에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잔차쟁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지
 자넨 가능성이 있어
 어때? 이참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겠나?
 복동 네? 제.. 제가요?

순간, 건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복동의 심장.

33. 장충공원 오전

훈련 시작에 앞서 선수들에게 복동을 소개하는 수하.
 소개하는 이 소개 받는 이 모두에게 어색함이 자리하고

수하 모두 들으셨죠?
 오늘부터 함께 운동할 엄복동군입니다.
 서로 통성명 하시죠?
 병철 통성명은 뭘 통성명..

각 툼- 복동을 밀치고 운동장으로 가버리는 병철.
 마찬가지로 병철을 따라 가는 선수들.
 도리 없는 듯 수하 역시 뭐라 딱히 할 말이 없고 복동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

cut to

줄을 지어 달리는 자전거들.
 새로운 동료가 못마땅한 듯 똥한 선수들 꿈무늬를 쫓아 달리는 복동.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것이 그저 꿈만 같다.
 쿵- 과한의욕에 앞 선수의 바퀴를 건드리자 신경질적으로 돌아보는 선수1

선수1 야!!

그제야 정신인 번쩍 든 듯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달리는 복동.
 이때- 공원 한쪽에서 들려오는 함성소리.
 보면 갑태를 비롯한 인력거꾼들이 복동을 응원하고 있다.

병철 저건 또 뭐야?

복동을 영 탐탁치않은 눈으로 제리는 병철.

화악- 복동의 옆구리를 들이받을 듯 달려들자 휘청-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복동.

cut to

멀찍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황재호와 수하.

황재호 어떤 것 같으나?

수하 삼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람 쓰시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시잖아요?

황재호 그래서 어떤 것 같아?

수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무모해요

쇄애애애- 돌아가는 바퀴.

복동을 따돌리려는 듯 한층 속도를 올려 선수들을 리드 하는 병철.

뒤쳐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복동.

획- 곡선주로에 접어들자 일제히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선수들.

순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파당- 넘어지고 마는 복동.

씨익- 웃음을 주고받는 병철과 선수들.

입 안 가득 모래를 내뱉으며 일어서는 복동.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파고가 만만치 않다

34. 장충공원 새벽

묵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는 공원.

쇄애애애- 저만치서 공기를 가르며 소리가 들리더니 곧 파당- 터져 나오는 파열음.

건히는 안개 사이로 들어가면, 언제 넘어졌는지 별떡- 일어서는 복동이다

넘어졌던 곡선주로 앞에 자전거를 세우더니 벼락같이 돌진하는 복동.

짱- 여지없이 바깥으로 밀려 자빠지는 복동. 이때-

(E)황재호 문제가 뭘지 알겠냐?

보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복동을 뻔히 보고 있는 황재호다

황재호 넌 기본적으로 승차자세부터 잘 못 되어있다

강단 있는 스승의 지적에 몸이 바짝 굳는 복동.

황재호 먼저 네 몸에 맞는 승차자세를 찾는 것이 필요해
몸을 뒤로 더 내리고 상체는 앞으로 더 숙이고.. 더! 더!
어떠냐?

신기하게도 한층 편해진 자세에 스스로 놀라는 복동.

복동 휘.. 훨씬 편해졌습니다.
황재호 자전거 경주는 체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민첩한 동작이 크게 작용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복동.

황재호 곡선에서 왜 넘어지는지 아느냐?
그건 원심력이라는 것 때문이다.
곡선주로를 달릴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타야 넘어지지 않지
힘에 의지하기보다 유연성이 필요해

후- 길게 숨을 내뿜고 힘껏 페달을 밟는 복동.
급경사면에 다다라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 들어간다.
휘이익- 속도를 유지하며 가까스로 곡선주로를 도는 복동.
이얏호- 절로 환호성을 내지르는 복동.

황재호 힘으로만 페달을 돌리려 하지 마라
돌린 다기 보다 둥근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스승에 지도에 맞춰 자세를 교정해 가는 복동.
그저 힘차게 밟기만 했던 페달을 유연하게 원을 그리듯 돌린다.
쇄에엑- 파도를 가르는 돌고래처럼 쾌속 질주하는 복동.

황재호 경주에서 자웅을 결정하는 것은 몇 분의 일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계산을 하고 기선을 잡아야 돼

출발 라인에 서서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복동.
보면 비둘기 한 마리가 겨루듯 앉아있다.
순간, 파앗-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비둘기.

쏟아져서 튀겨져 나가는 복동.

후둑- 후둑- 어느새 퍼붓기 시작하는 장대 비

황재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연습 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자전거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송곳처럼 쏟아지는 비가 복동의 잠자던 질주 본능을 깨우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쉬는 듯 폭풍처럼 달리는 복동.
무섭도록 빠른 학습의 복동을 뚫어져라 지켜보는 황재호.

35. 일미상회 오후

반짝거리는 구두코에 묻은 먼지를 조심히 떼어내는 병철.
포마드로 잔뜩 멋을 부린 선수들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땀에 폭 젖어 들어오는 복동.

선수1 어떤 놈은 들어오자마자 개인 지도에 팔자 한 번 좋네
선수2 그러게.. 나도 그런 관심 한 번 받아 봤으면 원이 없겠다

비아냥거리는 선수들 앞에 복동을 변호하듯 서는 수하.

수하 누가 누구 편에해요?
 말은 바로 하겠다고 복동군처럼 연습 해봐요-
 벌써 우승을 열백번 하고도 남았지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한지 서둘러 자리를 뜨는 선수들.
첻, 혀를 차며 나가는 병철. 순간, 뭔가 물컹한 것이 발에 밟히고
보면 개똥이다.

병철 아 씨팔-

턱- 복동의 자전거 앞바퀴에 발을 올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스윙- 스윙- 뒹아 내는 병철.

병철 폼나? 꼬우면 니가 선배해라

돌아서는 병철 뒤로 말없이 똥을 닦는 복동.
병철을 돌려 세우는 수하.

수하 치워요! 어서 치워요!!
 같은 동료잖아!

한 판 크게 붙을 것만 같은 수하와 병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동.

병철 동료는 누가 동료야?

툑- 수하를 밀치고 가버리는 병철.

36. 장터 오후.

장바구니를 들고 수하 뒤를 졸졸 따르는 복동.
예의 불편한 감정을 벌써 잊어버렸는지 마냥 생글 생글이다.
사내자식이.. 쫓쫓 혀를 차는 상인들.
이것저것 식 재료들을 골라 툑-툑- 복동의 장바구니에 던져 넣는 수하.

수하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아요
 요즘 경주가 안 풀려서 예민한 거니까
 그 사람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복동 네- 압니다.
수하 그리고 복동군도 그래요
 먼저 말도 붙이고 짹짹하게 그럼 덧나요?
 어차피 함께 운동하기로 했으면 한 식군데 융화가 되지..
복동 네

고를 만큼 다 담았는지 손을 털고 일어서 전대를 꺼내는 수하.

수하 이모- 저 번하고 같죠?
여주인 아휴- 안돼- 장마 끼어서 채소 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수하 나 한 번 보고 안 볼 거예요?

재주 좋게 흥정을 마무리 하고 돌아서는 수하.

cut to

입에 큼지막한 눈깔사탕 하나씩 넣고 장을 가로 지르는 복동, 수하
눈깔사탕이 입안을 구르며 마치 음성변조 한 것처럼 들린다.

수하 복동군은 자전거 왜 타요?
복동 네?

특- 예기치 않은 질문에 뭐라 말문이 안 터지는 복동.

수하 잔차쟁이 하겠다 결심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복동 그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저 웃기만 하는 복동.

수하 치.. 무슨 말 못할 비밀인지 더 궁금하네
복동 그러는 수하양은요?
수하 저요? 음
 언덕길을 달리자면 힘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는 통쾌함이 있잖아요.. 자전거.
복동 맞아요...

부정확한 발음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개부터 끄덕이고 보는 복동.
이때, 손가락으로 사탕을 집어 드는 수하

수하 자전거 신나잖아요?

그제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예! 아이처럼 대답하는 복동.

37. 일미상회 선수 숙소 밤.

콩나물처럼 뻗뻗이 붙어 자는 선수들.
외풍 솔솔 들어오는 문지방 바로 옆에 몸을 누고 있는 복동.

(E)수하 복동군은 자전거 왜 타요?
 잔차쟁이 하겠다 결심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치.. 무슨 말 못할 비밀인지 더 궁금하네

순간, 펼쳐지는 복동의 상상

일본선수들을 따돌리고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당당히 일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복동이.

부상으로 받은 트로피와 상장을 아버지께 드린다.

복동을 목마 태우고 함박웃음을 짓는 아버지 옆으로 귀동과 봉선이 덩실 덩실 춤을 춘다.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처럼 씨익- 절로 미소가 그려지는 복동의 얼굴.

이때, 어둠 속 슬그머니 일어서는 병철과 선수1,2

곤히 잠에 빠져든 동료들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

순간, 파악- 복동을 받을 났고 마는 병철.

아얏-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병철을 올려다보면

병철 잠이나 처자 새까-

빠져 나가는 병철과 선수1,2

38. 장충공원 오전.

헛들- 헛들- 수하의 구령에 맞춰 맨손체조를 하는 일미선수들.

무슨 모사라도 꾸미는지 병철과 밀담을 주고받으며 낄낄대는 선수1,2

복동만 외로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

이때, 손뼉으로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황재호.

황재호 오늘은 다가 올 경주에 대비해서 연습경기를 해볼까
항상 말하지만 연습은 곧 실전인 것 다들 알고 있겠지?

순간, 느슨했던 훈련에 긴장감이 감돌고 출발선으로 향하는 복동.

수하 삼촌, 아직은 무리 아닐까요?

속모를 삼촌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수하.

cut to

출발선에 앞바퀴를 정렬하고 서 있는 일미 선수들.

표한 긴장감이 감돌고

병철 어이 가마꾼, 어디서 굴어먹었는지 모르겠다만
잔차쟁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번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듯 똑바로 병철을 보는 복동.

복동 자전거는 말로 타는 게 아니라 다리로 타는 거라 배웠습니다
병철 어쭙- 이런 개새끼가 발가메는거 보게..
아- 뉘지고 싶나?

이때, 휘릭- 깃발을 들어 올리는 수하.

수웅- 출발부터 복동을 따돌리고 저만치 앞서나가는 병철.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이며 초장부터 기를 죽이겠다는 듯 전력을 다하는 병철.

선수들도 이에 질세라 초반부터 피치를 올리고 후미를 달리며 앞을 탐색하는 복동.

승-승- 중기기관에 발동이 걸리듯 종아리 근육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순간 누구도 예상 못한 폭발력으로 순식간에 앞으로 차고 나가는 복동.

곡선주로에 접어들자 능숙한 몸놀림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선수들.

궁금한 듯 병철이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곡선주로를 능숙히 돌아 나오는 복동.

선두 병철에 주욱- 주욱- 차고 나서는 복동을 향해 양쪽에서 달려드는 선수1,2

순간, 쉬이익- 바람과 함께 빠져나가고 쿵- 지들끼리 부딪혀 낙차 하는 선수1,2

결승점 앞, 선두를 놓고 죽을힘을 다해 달리는 복동, 병철

최악- 반보차로 병철에게 선두를 뺏기는 복동.

복동의 선전이 놀라운 듯 바라보는 수하.

속모를 미소를 짓는 황재호.

39. 일미상회 오후.

총기 수입을 하듯 부품들을 펼쳐놓고 기름칠을 하는 복동과 선수들.

복동에게 호기심이라도 느끼는지 키보다 훨씬 큰 자전거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하는 산웅(8세/수하동생)

발이 페달에 충분히 닿지 않아 빠지기 일쑤다.

급기야 부품수입을 하는 선수들 앞을 아찔하게 지나고

선수3 임마-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서 놀아!

뿔뿔해진 산웅 앞에 서는 복동.

눈짐작으로 산옹의 키를 보더니 페달에서 발이 빠지지 않게 얇은 가죽으로 발걸이를 달아준다.

복동 자, 한 번 타봐-

복동의 말대로 발이 빠지지 않고 휘- 휘- 앞으로 나가는 자전거.

어느새 방긋 웃는 산옹이.

이때, 선수1,2와 귀엣말을 주고받다 복동에게 다가오는 병철.

병철 야- 일루 와봐

cut to

취를 몰아붙이는 고양이처럼 구석에 세워 두고 웬일인지 담배를 권하는 병철

복동 저 안 펴요

병철 사내새끼가..

후- 복동에게 연기를 뱉는 병철.

병철 가마꾼, 너 오늘 좀 타더라-

복동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병철 거두절미하고 너 오늘 밤에 나 좀 도와줘야겠다

복동 (경계) 무슨... 일인데요?

병철 야- 도와줄 거면 그냥 활짝 벗고 화끈하게 도와줘 뭘 말이 많아..

히- 누런 이를 드러내며 능글맞게 웃는 병철.

40. 공터 밤.

밤안개 자욱한 공터.

등에 번호표를 붙이고 공터를 달리는 자전거들.

내기 돈을 건 선수를 응원하는 이들, 흥정을 벌이는 이들,

수지가 맞지 않았는지 드잡이를 하는 이들까지 아수라장이다.

도무지 꺼림직 한 분위기에 병철을 미심쩍게 보는 복동.

복동 이거 불법경주 아닙니까?

병철 불법은 니미.. 씨발-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

넌 그냥 내 앞에서 바람만 막아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복동 이러다 들통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전 됐습니다.
 병철 아- 새끼.. 간은 쥐 좇만 해갖고..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되잖아?
 (E)내기 꾀 왜 그래?

병철을 재촉하며 끼어드는 내기 꾀

병철 아.. 아니야

cut to

출발선에 자세를 잡는 선수들.

영 내키지 않는 복동을 다시 단도리 하는 병철.

복동 딱 이번 한 번입니다?
 병철 나도 더는 부탁하기 싫어 새끼야-
 다섯 바퀴만 잘 막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맘을 고쳐먹고 자세를 잡는 복동.
 휘릭- 내려가는 깃발에 내달리는 자전거들.
 내기꾼들의 함성이 공터에 메아리 쳐지고 선두로 치고 나가는 복동.
 복동의 뒤에 바짝 붙어 달리며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체력을 비축하는 병철.
 시작부터 펼쳐진 빠른 템포에 경쟁자들 대부분이 쳐지고
 여전히 선두에서 바람을 막아주며 병철의 어시스트를 충실히 하는 복동.
 마지막 바퀴, 체력을 한껏 비축했다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스프린트 하는 병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복동. 가슴 저 편에서 씩씩한 자괴감이 밀려든다.
 병철의 우승으로 화끈 달아오르는 공터.
 여기 저기 뭉치 돈이 오가고 흥정에 드잡이에 초라하기만 한 복동.

41. 일미상회 오전.

주판을 굴리는 황재호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하는 차두옥(52세/동신상회사장)

차두옥 이보게 재호, 자네 그 얘기 들었나?
 황재호 뭘데 그리 호들갑이야?

차두옥 자네 내기 돈 걸고 경주하는 이들 들어봤지?
 황재호 아직도 그런 시정잡배들이 있단 말이야?
 차두옥 허- 이 사람은.. 시정잡배라니..
 한 녀석이 바람막이하고 다른 녀석이 선착해서 내기 돈을 싸그리
 끌어갔다는데 그게 어디 삼류 실력인가?
 황재호 바람막이 요즘 애들도 다 따라해
 차두옥 글썽- 모르긴 몰라도 일류 실력에 건줄 만 하더래
 가만.. 거 자전거가 라지 라던가..

순간, 주판을 놓고 차두옥을 돌아보는 황재호.

수하 역시 불길한 예감에 창 너머를 쳐다보면 웬일인지 복동에게 어깨를 두르고 있는 병철.

cut to

불편하기만한 복동의 얼굴.

병철 야, 이왕 도와주는 거 한 번만 더하자
 복동 한 번만 한 번만 해서 벌써 몇 번째예요?
 저 더 이상 안한다고 했잖아요
 병철 야, 너 때문에 우진이가 다쳐서 그러잖아

보면 팔에 깁스를 하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선수1

병철 어차피 너도 공범 아니야?
 어디 사장한테 까질러 볼까?

난처 하기만한 복동.

42. 공터 밤.

와- 내기꾼들의 함성 터지며 선두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복동.

복동이 빠르게 선두를 이끌자 뒤따르던 선수들의 버거움이 눈에 보이고

벌써부터 손이 근질거리는지 돈을 셈해보는 선수1,2

이때, 휘둥그레진 눈으로 선수2를 찌르는 선수1

보면 공터 입구에 황재호가 오는 것이 보인다.

서둘러 내빼버리는 선수1,2

복동 뒤에 숨어 달리던 병철도 눈치를 채고 어둠을 틈타 도망치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것에만 열중하는 복동.
순간, 뒤를 따르던 병철이 없어진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복동.
아빨사, 앞을 보면 구경꾼들 사이 또렷하게 보이는 황재호.
암흑 한 가운데 황재호와 복동만 있는 듯 스트르- 무너지는 복동.

43. 일미상회 밤.

평소 감정을 보이지 않던 황재호의 불호령에 잔뜩 주눅 들어 집합 해 있는 선수들.
지켜보는 수하 역시 안타깝기만 하고, 무릎 꿇고 있는 복동 앞에 서는 황재호.

황재호 설마 했는데 네 놈이 고작 한다는 것이 이거냐?
네가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알거나해?

가슴이 찢어 질 것 만 같은 복동.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막막하기만 하다.

황재호 네 놈 혼자 일을 벌일 수 없을 터... 누구냐?
말하지 않으면 내 처질 것이다!
누구야?

모른 척 서로 눈을 맞추는 병철과 선수1,2
퍼억- 복동의 허벅지에 몽둥이를 내리치는 황재호.

황재호 누구얏!!
복동

굳게 입을 다무는 복동의 허벅지 위로 가차 없이 몽둥이질이 더해지고

수하 저.. 삼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복동군, 빨리 잘 못 했다고 빌어요 어서-

급기야 수하가 나서보지만 소용없고 여전히 굳게 다문 복동의 허벅지에 가해지는 매질
퍼억- 퍼억- 기기 죽어 눈을 찔끔- 찔끔- 감는 선수들.

44. 일미상회 오전.

훈련을 가기 위해 상회 앞으로 나서는 선수들.

어제 일을 벌써 잊어버린 듯 실없는 장난을 치며 나오는 병철, 선수1,2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와 있는 복동을 못 본 척 지나친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복동에게 다가서는 수하

수하 괜찮아요?
복동 네

여전히 장난질인 병철 일당을 알뜰게 보는 수하
이때, 황재호의 인기척에 자세를 바로잡는 선수들.
복동을 발견하고 다시 불호령이 터뜨리는 황재호

황재호 네 놈이 여기 왜 있느냐?
 네 놈이 자전거를 탈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복동 그만 둘 까도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그만 둘 수 없습니다.
황재호 뭐? 그만 둘 수 없어?
 그 낮 짝 한 번 두껍구나.
 그럼 금수 같은 네 놈에게 맞는 일을 찾아 주마

45. 몽타주 오전.

연자방앗간

드그득- 돌아가는 거대한 둥근 돌판.
마소가 끌어 곡식을 탈곡 제분하는 연자방아를 힘겹게 끄는 복동.
튼튼한 다리 힘도 어렵없고 부들부들- 경련이 일어나는 팔.
급기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복동.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하.

장충공원

병철을 선두로 줄을 지어 달리는 자전거들.
뽕무니도 제대로 못 달리고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자전거 하나.
자세히 보면 안장이 없는 자전거를 푹푹이 선 자세로 타는 복동이다.
쿵- 조금도 못 가 여지없이 넘어지는 복동.

가혹하기만 한 벌에 황재호를 원망하듯 쳐다보는 수하.
냉정하기만한 황재호의 얼굴.

일미상회 숙소

어깨며 다리며 온 몸이 시퍼렇다 못해 보랏빛을 띠는 복동.
누구하나 관심 가지는 이 없고

선수3 이 번 전조선 대회에 누가 나갈 거 같아?
선수4 (병철을 보며) 늘 나가던 사람 나가겠지...
 왜? 나가고 싶어?
선수3 당연히 나가고야 싶지
선수4 허- 펍이나.. 그 실력에?

있는 듯 없는 듯 외로운 복동.

연자방앗간

부스스- 곱게 갈리는 보리.
드그득 드그득- 제법 능숙하게 연자방아를 돌리는 복동이다.
멍 가득했던 어깨엔 어느새 굳은살이 붙어 있고 상체 근육이 놀랍게 두터워 져 있다.

장충공원

연습경주를 하는 듯 질주하는 일미선수들.
단연 군계일학 병철의 독무대다.
선수들과는 따로 달리는 복동.
이제 제법 안장 없는 자전거에 익숙해진 듯하다.
무표정하게 경주를 보다 스윙- 돌아서는 황재호.
안 되겠는지 작심한 듯 뒤에서 외치는 수하.

수하 삼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들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 하실 수 있으세요?

똑-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는 황재호.

황재호 자전거의 절반은 상반신으로 타는 거야
 그래야 힘을 놓치지 않을 것 아니냐?

신문답을 던지고 가는 황재호.
아차! 화색이 바뀌는 수하의 얼굴.

46. 일미상회 저녁.

중대 발표라도 기다리는 듯 술렁거리는 선수들.
이미 전조선자전차경주대회 대표로 확정이라도 된 듯 자신만만한 병철.
드디어 황재호의 방문이 열리고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는 수하.
모두의 시선이 수하를 향하고

수하 이 번 전조선자전차대회 일미상회 대표선수는... 정병철군...

당연하다는 듯 픽- 돌아서는 병철을 멈추게 하는 수하의 상기 된 목소리.

수하 그리고 엄복동군입니다!!

한 구석,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찌그러져 있는 복동에게 일제히 시선이 모아지고
어안이 병병한 복동.

수하 축하해요 엄선수

허허.. 의외지만 하나 둘 박수를 치며 복동을 축하해 주는 선수들.
쳇! 똥 썩은 듯 일그러지는 병철의 얼굴.

47. 황재호 방 밤.

황재호 앞, 초라하기 그지없는 복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찾잔을 기울이며 지긋이 복동을 바라보는 황재호.

황재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있다
 하나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실수를 한 후 반성하고 원인을 따져보고 성장하는 이가 있는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마저 속이려 드는 이도 있지
 잘 할 수 있겠느냐?

복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차오르는 복동의 눈물.

황재호 일류대회는 지금까지 네가 보아 온 경주와는 차원이 다른 경주다.

죽도록 달려야 할게야

복동 네!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문 밖,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미소를 짓는 수하.

48. 전조선 자전거 경주대회 시퀀스

푸르른 창공을 가르는 솔개.

휘이이- 탐색하듯 선회 하더니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곤두박질치기 시작한다.

건히는 구름 사이 그 위용을 자랑하듯 당당히 펼쳐진 용산 연병장으로 안내하는 솔개

흰 옷을 입은 수 만 관중들의 모습이 일렁이는 거대한 흰 노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임무를 마친 듯 다시 공중으로 솟구치는 솔개.

본부석

“전조선 자전거 경주대회” 멋들어지게 써진 프랭카드 아래

예의 야모토와 미키, 요요기 상회 간부들, 조선 총독부 고위관리들이 보인다.

경주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 흡족한 주최자들.

이때, 시종들의 부축을 받고 본부석으로 오르는 고종.

이 전보다 눈에 띄게 병색이 완연하다

스윽- 고종에게 인사를 올리는 야모토, 미키

야모토 폐하, 이번엔 꼭 조선선수가 우승했으면 합니다.

매번 일본선수가 이기니 영 심심해서요

파르르- 떨리는 눈.

불편한 심기의 고종을 비웃는 총독부 관리들.

미키 짓궂기도 하셔라

출전 대기소

천막으로 마련 된 선수대기실에서 몸을 푸는 복동.

이때, 휘릭- 천막을 걷고 들어서는 카즈라와 일본일류선수들

일본선수1 이게 무슨 냄새야?
일본선수2 이거 똥 냄새 아니야?
카즈라 어쩐지 조센진들 천지로군

조선 선수들을 조롱하듯 왁자지껄- 웃는 일본선수들
휘- 일본 선수들에게 달려들려는 병철.

황재호 화낼 줄 모르면 바보지만 참을 줄 도 알아야지.

겨우 진정되며 화를 삭히는 병철.
후- 후- 호흡을 가다듬으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복동.

경주장

경주장에 넓게 퍼져 이물질이 있는지 살피던 경주요원들이 각기 이상 없음의 수신호를
심판장에게 보내자, 휘이이익- 힘껏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장.
이에 함을 맞춰 일제히 연주되는 고적대의 경쾌한 팡파레 -
이얏- 저마다 기합을 넣으며 출전하는 선수들.
기를 붙어넣듯 복동과 병철의 어깨를 잡아주는 황재호.

황재호 카즈라가 옆에서 출발하게 됐다.
시작부터 맘 단단히 먹도록 해
복동/병철 네!
황재호 이제 원 없이 한 번 달려봐
오늘 세상이 개벽한다!

답하듯 힘껏 땅을 박차고 출전하는 엄복동.

관중석

행진곡의 리듬을 타고 속속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환호성을 외치는 관중들.

경주장

고적대의 행진곡에 맞추어 몸을 풀 듯 경주 장을 한 바퀴 도는 선수들.
슬쩍- 복동 옆을 달리며 나죽이 속삭이는 병철

병철 야- 가마꾼
넌 내 바람막이라는 거 알지? 잘해라

한 마디 쏘아대고 가는 병철 뒤에서 묵묵히 몸을 푸는 복동.

관중석

눈이 빠져라 선수들을 살피다 순간, 복동을 발견하고 입이 찢어지는 인력거꾼 갑태

갑태 어? 저기- 복동이여 복동이-
인력거1 오메.. 저렇게 입혀 논게 품 제대로 나불구마잉

복동이 앞을 지나자 하나 둘 셋- 합창하는 인력거꾼들.

일동 엄복동 잘해라--

출발선

하나 둘 출발선에 정렬하는 선수들.

챔피언 카즈라 옆에 줄을 맞추는 복동의 자전거.

스윽- 잔차쟁이 치고 작은 체구의 복동을 비웃는 카즈라.

카즈라 일미상회가 이제 경주를 아예 포기한 모양이군..

비아냥에 맞장구치듯 복동을 보며 비웃는 일본선수들.

일본선수1 바닷가 계가 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초장부터 기를 죽이듯 복동을 비아냥거리는 선수들.

이때- 화약총을 높이 들어 올리는 심판장.

정적의 순간.

싸악-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요해 지는 경주장.

순간- 탕 -- 하는 총성과 함께 일제히 튕겨져 나가는 선수들.

이어 우와와와아-- 함성을 내지르는 관중들.

경주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숨 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주장

50바퀴를 도는 일류책임경기.

초반부터 우위를 점하려 어깨 싸움을 하는 선수들.

예상을 깨고 카즈라를 양쪽에서 압박하며 나란히 달리는 복동과 병철.

순간, 복동의 어깨를 밀어버리는 카즈라.

휘청- 균형이 깨지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복동의 자전거.

이 틈을 타 복동을 앞 질러가는 선수들.

대기실

심하게 흔들리는 복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황재호,수하

관중석

어어-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새어 나오는 탄식.

가슴 졸이며 바라보는 갑태와 인력거꾼들

관중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인지, 그새 균형을 잡고 상대선수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복동.

안도하듯 복동을 바라보며 손에 힘을 꼭 쥐는 갑태

경주장

초반부터 단독 질주 하며 상대 선수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달리는 카즈라

카즈라 뒤를 병철이 추격하고 그 뒤를 무리를 이루어 따르는 선수들.

무리 끝, 차분하게 경주에 집중하는 복동.

남은 바퀴수를 알리는 요원이 41이란 숫자를 떼어내자 드러나는 40바퀴.

순간, 쎄애애- 페달을 힘차게 밟아 앞선 선수 들을 단숨에 따라 잡는 복동.

본부석

여전히 카즈라의 단독선두가 유지되고 그 뒤를 병철이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여유 있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주를 즐기는 간부들.

경주장

31숫자가 떼어지고 30바퀴가 드러나자, 다시 페달에 힘을 주는 복동.

슈우웅- 바람을 가르며 앞 선 선수 들을 순식간에 추월해 버리는 복동.

21바퀴가 떼어지고 20바퀴가 드러나자 역시 가속을 더하는 복동.

차차차악- 이내 앞 선 선수 들을 또 다시 제끼고 선두그룹으로 끼어드는 복동.

관중석

일시적 현상일 줄만 알았던 복동의 스프린트가 계속해서 작전처럼 맞아 떨어져 가자

우어어어-- 관중들도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하고

눈을 부릅뜨고 복동을 쫓는 고종.

본부석

예상 밖 복병의 등장에 관심을 보이는 요요기 상회 간부들

간부1	저기 일미상회 선수가 꽤 돋보이는군요
간부2	오호... 그렇군요
	하지만, 미이케상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때뭇기가 뛰어야 한철이라고....

간부2의 농에 안심하듯 깔깔거리는 간부들.

경주장

쇄애애애애- 선두 그룹을 달리는 선수들의 자전거에서 거센 공기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처음 보는 복동의 선전에 잔뜩 경계심을 보이는 선수들.
복동이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어 11이 떨어지고 10이 보이자 기어 변속을 하듯이 숨을 한껏 들어 마셔 가슴에 담은 복동.
슈우웅웅-- 바람을 가르며 선두그룹에서 튀어 나가는 복동.
복동의 스프린트에 질세라 이에 보조를 맞춰 속도를 올리는 선수들.
더욱 빠른 속도로 박진감 있게 펼쳐지는 경주.

대기실

손을 불끈 쥐고 눈이 빠질 듯 경주에 집중하는 황재호, 수하

경주장

5바퀴를 남겨 놓은 상황.
선두그룹을 형성했던 선수들 몇이 나가떨어지고
선두 카즈라를, 복동과 병철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복동 뒤에서 공기저항을 피하며 힘을 비축해보나 워낙 빨리 펼쳐지는 경주에 버티지 못하고 뒤처지는 병철.

본부석

곧 처질 줄 알았던 복동의 계속 된 선전에 설마 하는 표정으로 경주에 집중하는 야모토

경주장

숨- 카즈라의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 뒤 숨- 숨- 숨- 거센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복동
이에 때를 맞춰 기다렸다는 듯 종을 흔들며 대는 심판장.
땡- 땡- 땡- 땡- 긴박한 종소리가 맥박을 흔들어 깨우듯 경주 장 가득 울려 퍼지자
일제히 라스트 피치를 내는 선수들.
순간, 버럭 소리를 내 지르는 황재호.

황재호 지금이야!

느닷없이 엉덩이를 하늘로 좌악- 치켜 올리는 복동.
안장 없는 자전거를 탈 때의 꺾꺾한 자세다!!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는 희한한 자세에 경악한 듯 입을 썉 - 벌리는 관중들.
이이이얏얏--- 송- 송 대형 중기기관의 실린더처럼 폭발하는 복동의 허벅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더니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복동.
복동의 추격을 느끼고 마지막 용을 쓰듯 고개를 푹 숙이고 질주하는 카즈라

결승점을 오십 보 앞둔 상황,
수만의 시선이 결승점에 모아지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는 고종.
시간이 정지된 듯 초 슬로우모션으로 결승점을 향해 치달는 복동과 카즈라
숨을 줄이며 바라보는 황재호,수하, 야모토,미키

황재호 복동아!!

순간, 슈욱- 슬로우모션 풀리며 카즈라보다 반보 앞서 골인하는 복동.
연자방아를 밀듯 핸들을 밀고 당당히 결승선을 통과한다.
우와와와와- - 천지를 뒤흔들 듯 일렁이는 흰 노도의 물결.
허를 찢린 듯 멀뚱한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는 야모토를 비롯한 요요기 상회 간부들.
나이를 잊고 아이처럼 제 자리서 방 방 뛰며 서로 끌어안는 황재호와 수하

출입금지 새끼줄을 걷어버리고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갑태를 비롯한 관중들
관중들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뒷걸음치는 경주요원들.
복동을 무동 태우고 운동장을 도는 갑태.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감격의 인사를 하는 복동.
초상집처럼 썰렁한 본부석, 야모토 앞에 서는 고종.

고종 조선 선수가 우승해서 심심하지 않으셨겠소

특- 비수를 던지며 흐뭇하게 내려가는 고종.
쑥쑥한 야모토 뒤로 씨익- 미소를 짓는 미키.

미키 이제야 뭔가 재밌어 지는군

49. 거리 오후.

텅 빈 거리, 떠돌이 개 한 마리만이 웅덩이에 고인 물에 목을 축이고 있다.
이때,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진동음.
웅덩이에 파장이 점점 커지더니 겁을 먹고 뽕무늬를 빼는 개.
우와와와- 들소 떼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뒤흔드는 사람들.
순간, 일제히 거리가 마비된다.

관중 이겼다- 조선놈이 일본놈을 이겼다- -
 이겼다- 조선놈이 일본놈을 이겼어- -

거리 곳곳에서 목청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

50. 일미상회 저녁.

흰하게 불이 밝혀진 일미상회.

마당 곳곳에 앉아 잔치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산옹.

분주히 음식을 가져 나르며 인터뷰 세례를 받는 복동을 호뭇하게 바라보는 수하.

기자1	엄선수 지금 기분 어떠세요?
복동	얼떨떨한데요
기자2	주법이 참 특이하던데 특별한 작전이 있었습니까?
복동	저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질문에 어안이 병병한 복동.

기자3	엄선수 다리 좀 보여 주세요
-----	-----------------

바짓단을 걷어 올리자 번쩍- 번쩍- 터지는 후레쉬.

기자4	엄선수 엄선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카즈라와 재대결에서도 이길 자신 있습니까?
-----	---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복동을 기자들로부터 떼어놓는 수하.

수하	엄선수도 이제 쉬어 야지요 이 쪽으로 오셔서 요기들 하세요
----	-------------------------------------

수하의 배려에 겨우 빠져 나온 복동.

이때- 상회 안으로 궤짝들을 들고 들어오는 시종들.

모두의 시선이 모여지면 앞으로 나서는 기품 있는 상궁.

상궁	고종전하께서 오늘 엄복동 선수가 보여준 승리는 적막한 삼천리강산을 범람하고 진감시킴에 충분하였다며 친히 하사품을 보내셨습니다.
----	--

순간, 숙연해 지는 분위기.

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황재호

병철	챗, 촌놈의 새끼 팔자 뻘네-
----	------------------

벨이 꼬인 듯 나가 버리는 병철.

51. 사계야 밤.

지끈거리는 머리를 누르며 잔뜩 미간을 좁히고 있는 야모토.
무거운 분위기, 누구하나 나서서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청문회 증인처럼 불러 나와 있는 카즈라만 바라볼 뿐이다.

카즈라 늬이 어찌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망심 했습니다.
 다가 올 경주에서 보란 듯 늬을 꺾겠습니다.

그제야 말문이 트인 듯 카즈라를 두둔하는 간부들

간부1 그렇습니다.
 카즈라가 누굽니까 8연승을 달리던 일류 중에서도 일류선수 아닙니까?
간부2 이번엔 늬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다음엔 반드시 카즈라가 우승 할 겁니다.
 안 그런가?
카즈라 당연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앞 다투어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듯 한 간부들의 하소연에 찬물을 끼얹듯
갈갈갈 배를 쥐고 웃는 미키.

미키 만약 지면.. 할복이라도 할 건가요?

동의하듯 카즈라를 쏘아보는 야모토.
호기 좋았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서늘해지는 좌중.
진땀을 흘리는 카즈라를 보며 픽- 웃음을 흘리는 미키.

52. 용산연병장 오후

관중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용산 연병장
본부석, 스웁- 고개를 돌려 야모토에게 의미 있는 눈빛을 보내는 간부1.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재밌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미키.
트랙에 이물질 점검을 하며 슬쩍- 유리 조각들을 뿌리는 경주요원들.
금방이라도 튀어 나갈듯 잔뜩 도사리고 있는 복동.

심판장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즈음, 출발선으로 달려오는 요원하나.
심판장과 귀엣 말을 속삭이더니, 가운데에 위치한 복동을 맨 끝으로 옮기라 지시한다.
우~ 관중석의 야유를 이끌어 내며 주최 측을 성토했는 갑태와 인력거꾼들.
불합리한 지시에 심판진에 거세게 항의하는 황재호.

황재호 아니, 경주 전 이미 번호표를 뽑았지 않소?
심판진 황 사장, 그건 잘못 표시 된 거였소
황재호 어떻게 이런 상식에도 없는 짓을 한단 말이요?

황재호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강행되는 경주.
작전을 다시 점검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일본 선수들.

탕- 화약이 격발되자마자 복동을 안쪽으로 거세게 밀어 붙이는 일본 선수들.
앞, 뒤, 옆 사방으로 복동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철저히 틈을 내주지 않고
경주 장 가득 우~ 관중들의 야유가 판을 치고, 펼쳐지는 진풍경에 혀를 내두른다.
오로지 엄복동을 막기 위해 달려 붙은 선수들

곧 지뢰처럼 펼쳐진 유리조각 지역으로 다다르고 이대로라면 필경 복동이 낙차 할 터
순간, 쇼트랙경주를 보는 듯 숙- 살짝 벌어진 틈새를 놓치지 않고 겹싸게 파고드는 복동.
복동에게 바깥으로 밀린 일본선수가 유리 조각을 밟더니 균형을 잃고 뒤집어 지고
선두를 달리는 카즈라를 맹추격하는 복동.

등등등등--- 복소리로 엄복동의 질주에 보조를 맞추며 신이 난 관중들.
카즈라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복동.
절대 질 수 없다는 강력한 투지로 복동에게 맞서는 카즈라.
땡땡땡-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쏟아지는 빛을 쫓고 팟- 엉덩이를 하늘 높게 치켜드는 복동.
순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는 관중들.

관중들 올~ 라 아 간 다~ 아 - - -

파바빳- 로켓탄두처럼 튀어나가며 단독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복동.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엄복동’ ‘엄복동’을 목이 찢어져라 연호하는 관중들.
이때, 쎄엑- 복동의 우승을 축하라도 하듯 창공을 가로지르는 경비행기.
“땀타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이 자전거”를 목 놓아 부르는 관중들.
주저앉아 속절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내젓는 카즈라

이번이 아닌 복동의 압도적 실력을 실감하며 싸늘해지는 야모토의 표정.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복동을 보며 요염한 웃음을 흘리는 미키.
우당탕-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는 야모토.

버얼지게 달아올라 안절부절 못하는 간부들을 보며 배를 쥐어 잡고 깔깔대는 미키.
복동을 해부하듯 노려본다.

53. 몽타주 시퀀스

박력 있는 메인 테마음악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펼쳐지는 몽타주.

경주장

을 . 라. 간. 다. 아!!

관중들이 함성을 선창하고 이에 답하듯 번쩍- 하늘 높이 엉덩이를 치켜드는 복동
스틸 컷의 파노라마처럼 차차차찰카- 펼쳐지는 복동의 쾌속질주.

논

경상도 (경상도) 아, 고마 엄복동이가 궁뎅이를 이라고 치켜 들어뿌니까
왜놈들이 다 나자빠지썩는 기라 -

느티나무 밑

충청도 (충청도) 아... 그러니께.. 엄복동이가
사람들 아휴, 답답혀 죽겠시유~ 빨리 좀 말 혀유~

씨름판

전라도 (전라도) 아따, 눈에 보이들 안해분당께요-
기차도 엄복동이를 못이길 것이요-

냉면 집

평양 고 아새끼래 장판지가 딸이디
웬만한 에미나이 허리통 보다 더 크다 이기야-

바다 위

해녀1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구만.
해녀2 근데, 엄복동이 누구예요?
해녀3 어이구, 그러니까 춘년소리 듣는 거여 -

우미관 앞

삼삼오오 “땃다 보아라 하늘에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땅에 엄복동이 자전거”
노래를 부르며 몰려다니는 아이들을 지나 우미 관에 들어서는 김두한

김두한 아- 망치!
 요즘 애새끼들이 다 저 노래만 부르던데 저게 뭐냐?
 망치 아, 진짜 형님도... 엄복동이기도 모르십니까요?
 김두한 엄복동?
 (주먹을 불끈 쥐며) 그 새끼 무슨 파야?
 망치 아.... 진짜.. 형님 엄복동이는 자전거 선습니다요.
 김두한 근데 이 자식이 어따 눈을 부라려?

김두한의 발길질을 피해 도망치는 망치.

창경궁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살피는 고종
 슬쩍- 어깨 너머로 신문을 보려 기웃대는 내시.
 독립신문 일면에 사진과 함께 포효하는 복동의 모습이 당당하게 펼쳐진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호뭇하게 바라보는 고종
 “ 엄복동이 조선의 피를 끓게 하고 조선의 맥박을 다시 뛰게 했다”

cut to

짜악- 신문을 찢어 버리는 카쯔라.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켜보던 후배들까지 두들긴다

53. 눈 밤

정월 대보름, 쪼으로 달집을 만들어 놓고 동쪽을 바라보며 어서 달이 뜨기를 기다리는 조선인들
 복동과 수하를 비롯한 일미상회 선수들도 한해 액막이와 풍년을 기원하며 달집태우기에 나와 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달이 얼굴을 보이자 징과 쟁과리로 달을 맞이한다.
 곧 달집에 불을 당기자 활활- 타오르는 달집.

어르신 올 해도 풍년이로구나

농악대의 가락에 신이 난 듯 쑥방망이에 불을 붙여 빙빙 돌리는 아이들
 불꽃이 원을 그리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타오르는 불빛에 어른거리는 수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복동.

수하 예쁘죠?
 복동 네 정말 예쁘십니다

수하 저 달 말이에요
복동 아... 네..

알면서 모르는 척 풋- 웃는 수하.
월월 타고르는 달집을 바라보는 복동
고향 평택에서 아버지와 귀동, 봉선과 함께 달집태우기를 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때- 화르륵- 넘어지는 달집
달집이 넘어진 방향을 확인하더니

어르신 소테리가 풍년이로세-

운수를 점치시는 어르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음식과 약주를 주고받는 조선 사람들.
수하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 속에 섞이는 복동.

복동 저.. 제발 이것만은
수하 조선 최강의 사나이가 춤은 영 아닌데요

깔깔- 오랜만에 웃음을 터트리는 복동

54. 일미상회 밤

휘영청 뜬 보름달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황재호

황재호 밝다

순간, 상회에 불을 놓는 누군가의 손.
화락- 순식간에 타고르는 불.

55. 논 밤.

논 밭두렁에 쥐불을 놓자 자욱한 연기와 함께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
은 들판이 타고르는 불로 장관을 이룬다.
들판 구석에 서서 쥐불을 바라보는 병철과 일미선수들.
병철은 다정해 보이는 복동과 수하를 보니 속이 뒤뜰린 듯 혀를 찬다

이때- 휘둥그레지는 선수1의 눈

선수1 어라? 요요기 새끼들 아냐

보면 조선옷을 입은 요요기 선수들이 군중들 사이로 은밀하게 섞이고 있다.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 질 것을 느낀 병철과 선수들

병철 개육이 일남이 소팔이는 상회로 빨리 가봐
나머지는 나랑 같이 간다. 조심해라

요요기 선수들을 쫓아가는 병철과 선수들.
아무것도 모르고 수하와 쑥방망이를 빙빙 돌리는 복동
이때- 어둠속에서 거리를 좁혀오는 무리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에 경계를 차리려는 순간

수하 당신들 누구야? 으아-

단 번에 패대기쳐지는 수하.

복동 수하양!

순간, 폭- 복동의 배에 칼을 찔러 넣는 괴한. 보면 씨익-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카즈라다.
이때-

병철 야- 이 개새끼들아

달려드는 병철과 일미선수들을 보고 쩍새게 도망치는 요요기 선수들.
까아악- 비명을 지르는 수하.
왈왈- 배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복동이다.

56. 일미상회 밤

화악- 엄청난 불길을 내뿜으며 상회를 뒤집어 삼키는 화마.
물과 모래를 뿌리며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선수들.
쓰러지는 상회를 망연자실 바라보는 황재호.

57. 요요기 상회 총판매장 오전

지금의 명동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자전거 매장.

호화로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썰렁하기만 하다.

빼곡이 줄지어 있는 것도 모자라 층을 이뤄 쌓여 있는 계고량을 둘러보는 야모토 옆으로 일상적인 톤의 보고를 올리는 간부1.

간부1 엄복동이 등장하고부터 자전거 판매량은 세배이상 증가하였지만 저희 요요기자전거는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복동이 영국계 라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야모토의 표정.

눈치도 없이 불쑥- 끼어들어 남 일 말하듯 하는 간부2

간부2 더구나, 총독부에서는 엄복동 등장이후 조선인들이 심하게 동요되고 있는 것에 적잖게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전거 경주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윽- 고개를 돌려 간부2를 날선 눈으로 노려보는 야모토.

잠시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들어보면 여전히 뚫어져라 노려보는 야모토의 살기어린 눈빛에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 털썩- 부복하는 간부1,2

간부1,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매장으로 들어서는 미키, 야모토에게 귀엣말을 건넨다.

순간, 굳어지는 야모토의 표정

58. 야모토 관사 오후

야모토를 중심으로 양쪽에 길게 도열해 있는 간부들과 선수들.

잔뜩 겁먹은 얼굴로 무릎이 꿇여 있는 카쓰라를 보며

미키 빠가

조소하는 미키.

순간, 카쓰라를 노려보던 야모토, 질풍처럼 니뽀도를 빼들어 달려든다.

휘익- 허공을 가르는 검.

절끈- 눈을 감고 으아- 울음을 터뜨리는 카즈라.

검은 목에 작은 생채기만 내고 다시 집에 들어간다.

카즈라 앞에 찌작 쪼그리고 앉아 툭-툭- 뺨을 건드리더니 훗- 알 수 없는 미소를 흘리는 야모토.

어느새 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오줌.

59. 서울의원 오후

절뚝- 절뚝- 병철의 팔에 의지해 긴 복도를 걷는 황재호

병실 문을 열면 배에 봉대를 칭칭 감은 복동이 수하와 선수들 가운데 있다.

스승을 보고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복동

황재호 누워 있어라

괜찮다는 배려에도 기어이 몸을 일으켜 앉는 복동.

황재호 좀 어떠냐?

복동 꽤.. 괜찮습니다.

이 번 경주 전까지는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순간, 못 마땅한 듯 끼어드는 병철

병철 하- 이런 건방진 자식

야- 니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는 뭐 호구나?

수하 복동군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걸 다 고깝게 생각해요

병철 야, 엄복동 너 아니어도 요요기놈들 충분히 박살낼 수 있으니까

니 몸이나 간수해

첻- 코웃음을 치며 나가 버리는 병철.

수하 으휴- 저 성질머리 하고는..

복동 아닙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황재호 이참에 폭- 쉬도록 해라

이 녀석들에게도 설욕할 기회를 줘야지

의욕 넘치게 나서는 선수들

선수1 엄복동 너 복수는 이 형님이 아조 제대로 해준다
걱정 붙들어 매고 쉬어- 알쥐?

60. 사께야 밤

사미센 가락으로 모국의 향수를 달래는 야모토와 간부들
야모토의 잔에 사케를 기울이며 간부들을 똑바로 보는 미키

미키 여러분들은 엄복동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리둥절한 간부들

간부1 그야 녀석의 튼튼한 두 다리가 아니겠소?
미키 천만예요
 녀석의 강점은 격렬한 투쟁심이에요

61. 만주 구치소 오후

끼이이익- 녹슨 철문이 열리며 석방되는 사내. 자세히 보면 예의 김억대다.
아무렇지도 않게 튼- 가래침부터 뱉는 억대
그 앞으로 고급 클래식 차가 입을 벌리고 억대를 기다리고 있다.
안을 보면 요염하게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미키

off)미키 그리고 그 투쟁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더 큰 투쟁심이죠

62. 억대 몽타주

미키의 나레이션에 맞춰 무게감 있게 펼쳐지는 몽타주

유도복을 입은 일본 학생들을 보릿자루 던지듯 땅에 메다꽂는 억대.

미키 김억대
 전라도 목포 출신의 싸움꾼으로

운동장을 내달리는 육상 선수들.
단연 균계일학으로 선두를 내달리는 선수. 바로 억대다.

미키 전조선육상선수권 3회 연속 우승
 역전 구간 마라톤 최고기록 보유에 단거리에서 중장거리까지
 그야말로 전천후 병기

격분한 억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우승 트로피를 박살낸다.

미키 조선인이기에 올림픽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비운의 사나이는

싸움판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육박지르는 억대

미키 이제 승부에 목마른 맹수가 되었죠
간부2 그렇더라도 자전거 경주는 처음 아니오?

요시! 간부2의 반문에 동조하는 간부들.

검투사들의 격투를 보는 것 만 같은 거친 자전거 경주.

만주 별판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온갖 반칙이 남무 하는 야생에서 당당히 일등을 달리는 억대
쓰러져 있는 상대를 가차 없이 갈아버린다.

63. 사깨야 밤

요염한 웃음을 흘리는 미키

미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억대 군

순간, 양쪽으로 문이 열리며 성큼- 들어서는 억대.

다다미에 엎드려 야모토에게 절을 한다.

억대 거두어주신 은혜 목숨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억대의 아우라에 압도되는 간부들.

씨익- 눈을 마주치는 야모토와 미키.

64. 용산연병장 오후

경주를 재촉하는 관중들의 함성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경주장

오늘만큼은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잔뜩 고무되어 있는 일미상회 선수들.

이때, 요요기 선수들이 고적대의 팽파레와 함께 출전한다.

척- 출발선에 앞바퀴를 정렬시키는 역대

낯선 얼굴을 경계하다 이내 역대가 조선인임을 알아차리고 인상을 구기는 병철

병철 조선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쪽바리 개 노릇을 하나?

깔깔- 병철의 비아냥에 추임새를 넣는 일미선수들.

스윽- 병철을 돌아보는 역대. 무표정한 얼굴에서 뿔어져 나오는 기세에 순간 멈칫한다.

병철 (애써) 아이고 무서라.. 쳐다보면 어쩔건데? 응?

병철의 잔죽임을 무시하고 출발수신호를 기다리는 역대.

탕! 일제히 튕겨져 나가는 선수들.

모두의 예상을 배반하고 선두로 치고 나가는 역대.

폭발력이 복동과 자웅을 겨뤄볼만 하다.

역대의 기습적 약진에 자극을 받은 듯 오버페이스로 역대를 따라붙는 병철과 일미선수들
양쪽으로 역대를 견제한다.

좁게 무리를 이루어 파바빳- 어깨를 부딪히며 치열한 자리쟁탈전을 벌이는 선수들

떡- 팔꿈치로 병철을 내지르는 역대

우당탕- 먼지폭풍을 일으키며 꼬구라지는 병철의 뒤를 이어 연쇄적으로 낙차 하는 선수들
뿌영게 가려진 먼지 속을 뚫고 나오는 이. 역대다.

역대의 단독질주!

크하하- 흐뭇한 웃음을 짓는 요요기 간부들

우- 관중들의 야유에 아랑곳없이 결승 테일을 끊는 역대.

65. 일미상회 오후

퇴원한 복동의 눈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

화재로 스러져 버린 상회를 다시 세우는 선수들이 눈에 들어온다

선수3 오메- 이게 누구여 복동이 아니여?

선수4 얼굴 좋아졌네 축하한다

저마다 등짐을 메고 복동의 퇴원을 축하해 주는 선수들.

받는 것에 익숙지 않은 복동이 머쓱한지 고개를 돌리면 천막아래 봉대를 칭칭 감고 있는 병철과 선수 1,2가 보인다.

off)수하 요요기에서 새로 영입한 늑에게 한 방에 당했어요

돌아보면 흙투성이의 수하다.

수하 사카모토 마사유키
 본래 조선인이지만 지금은 왜놈들의 주구조

파바밧- 몸싸움을 즐기더라도 하듯 일미 선수들을 낙차 시키는 억대

수하 복동군을 잡기위해 살인죄로 만주구치소에 복역 중인 늑을 때웠죠
 늑들도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봐요
 그런 흉악범을 다 때오고..

다 스러진 상회와 사경을 넘나드는 동료들을 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복동.

66. 장충공원 오전

쇄애애액- 줄을 지어 달리는 일미상회 선수들.
선두를 달리는 복동. 이제 명실공이 일미상회의 에이스다.
복동의 빠른 회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황재호와 수하
이때, 멀리 복동의 훈련을 지켜보는 중절모를 쓴 무리들.
자세히 보면 요요기 간부1과 김억대다

간부 저기 선두를 달리는 자가 바로 엄복동이다.

눈을 찌르는 햇살을 손바닥으로 막고 잔뜩 미간을 좁혀 보는 억대
보면 복동의 얼굴이 정면으로 들어온다.
앗! 굳어지는 억대의 얼굴.

간부 왜 그런가?
 설마 벌써부터 엄복동에게 겁을 먹은 건가?
억대 천만에

달리는 복동을 찬찬히 보는 억대.
순간, 크하하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포효한다.

67. 용산연병장 오후

엄복동의 복귀전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관중들.

구경꾼1 아- 이번 경주 모르겠는데..

구경꾼2 이 사람 무슨소리.. 하늘엔 안창남이요 땅엔 엄복동이기도 몰라

엄복동이나 신승 김억대나 서투르게 승부를 점치는 사람들 아래로 고적대의 팡파레와 함께 출전하는 각 선수들. 척- 복동 옆에 서는 억대

억대 형씨 오랜 만이오

순간, 억대를 확인하고 까무라치듯 놀라는 복동

복동 다.. 당신이 사카모토?

특유의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억대

복동 이게 어떻게 된거요?

다..당신은 조선사람 아니오?

억대 훗.. 조선이고 일본이고 난 그런거 모르오

태어난 인생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너절한 인간일 뿐이지

복동 형씨가 말한 야망이 이런 거였소?

고작 왜놈들 앞잡이가 되는 거였냐는 말이오?

억대 이봐 엄복동 잘난척하지마

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왜놈들 자전거나 팔아주고 있는 주제에..

너나 나나 똑같아 알아?

억대와 팽팽히 맞서는 복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수하.

관중석은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른다.

이때, 본부석을 보며 뭔가 미심쩍은 얼굴이 되는 황재호

보면 늘 자리를 지키던 야모토의 자리가 비어있다?

68. 야모토 차안 오후

신작로를 질주하는 야모토의 차
용산연병장이라고 표시된 갈래 길에서 다른 길을 탄다.
어리둥절한 미키

미키 오구리군 길을 잘못 든 것 아니야?

백미러로 답하는 오구리

오구리 사장님께서 분명히 인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태평히 눈을 감고 있는 야모토를 바라보는 미키

야모토 김억대가 쓸만한 칼인 것은 분명해
그러나 소 잡는 칼로 범을 잡을 수는 없지
범잡는 데는 범잡는 칼이 필요한 법

부아앙- 신작로를 거세게 내달리는 차.

69. 용산연병장 오후

팻-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는 복동과 억대
와- 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출발부터 옆치락옆치락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두 사람.
바짝- 붙어 장기인 어깨밀기로 복동을 위협하는 억대.
복동도 이에 지지 않으며 파팻- 불꽃을 튀긴다.
위험천만한 질주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관중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어라 내달리는 두 사람에게도 피로가 엄습한다.
상처 후유증인지 점점 무더지는 복동의 다리.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전매특허인 엉덩이를 차악- 치켜드는 복동.
스윽- 상처부위가 찢기며 피가 솟는다.
순간, 복동의 배를 보는 억대.
페달링을 멈칫- 하고, 슈웅- 선두로 끌인하는 복동.
와- 너나할것없이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이 자전거를 부르는 관중들
관중들의 환호를 뒤로 상처를 움켜쥐는 복동.

멀리 억대를 돌아본다.

픽- 알 수없는 미소를 지으며 멀어지는 억대.

70. 인천부두 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쓸어버릴 태세로 몰려오는 거대한 먹구름

노선원의 눈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긴박하게 접안을 준비하는 선원들.

넘실대는 파도 위, 위태롭게 정박해 있는 운요호 앞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는 야모토의 차.

뒷좌석, 무슨 일 인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야모토를 돌아보는 미키.

미키 태풍이 불 것 같은 날씨네요
야모토 훗, 태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쿵- 줄을 지어 서 있는 요요기 일류선수들 앞으로 대지는 거대한 철판.

고개를 빼고 안을 내다보는 카즈라의 눈이 이내 아이처럼 커지고

건장한 사내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는 거구의 두억시니(모리 다카히로/29세/일본챔피언)

꿀꺽- 침을 집어삼키며 모리에게 달려가 공손히 우산을 받치는 카즈라.

마치 초등생이 큰 어른에게 우산을 받치는 형국이다.

카즈라 선배님, 여행은 괜찮으셨습니까?

쩍쩍매는 카즈라를 내려보며 픽- 웃는 모리

모리 카즈라, 조선에서 세월이 좋았나 보구나.. 이렇게 살이 붙은 것 보니..

점연쩍게 미소를 짓는 카즈라 뒤 일제히 예를 갖추는 요요기 선수들.

일동 모리 선배님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관심 없는 듯 밀려오는 구름을 보는 모리

모리 바람이 선선한게 경주하기 좋은 날이다
 안 그런가? 카즈라

우산을 받치느라 흐르는 땀물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카즈라

카즈라 네.. 그렇고 말고요..

창밖, 넘치는 카리스마의 모리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미키.

미키 모리 다카히로, 천황배 50연승에 빛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저 본 적이 없는 무패의 신화.
 승부라면 지옥이라도 쫓아갈 사나이로쥬?
 태풍보다 더 무서운 사내를 불러들이셨군요
야모토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엄복동의 투쟁심을 꺾을수 있는 것은 더 큰 투쟁심 밖에 없다고

웃음을 주고받는 야모토와 미키.

71. 요요기 연습장 오전

잔뜩 긴장한 표정의 요요기 간부들.
보면 모리와 역대가 출발선에 나란히 대기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인 모리를 보고 굳어지는 역대의 얼굴
생전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혼란스럽다.
휘릭- 수신호와 함께 앞서 출발하는 역대
픽- 웃으며 뒤를 쫓아 서서히 가속을 하는 모리.
이륙하는 항공기처럼 어마어마한 가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한다.
슈유우욱- - 태풍처럼 대지를 흔들 듯 달리는 모리의 폭발적 질주에 입이 벌어지는 간부들
이내 역대를 따라잡더니 파광- 그대로 갈아뭇개버리며 질주하는 모리.
우당탕- 뒤집어지며 비명을 내 지를 새도 없이 꼬꾸라지고 마는 역대.
잔인하리만치 침착하게 트랙을 내달리는 모리에게 혀를 내두르는 간부들.

cut to

들것에 실려 나가는 역대를 물끄러미 보는 미키

미키 같은 편인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요?
모리 누구라도 내 앞에 가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금방이라도 불을 뿜어낼 활화산 같은 모리의 뒷모습을 보며 씨익- 웃는 미키.

미키 호호호- 벌써부터 경주가 기다려지는데...

72. 요요기 상회 앞 밤

꿈쩍도 안할 것 같은 대형 철판이 열리며 퍼억- 바닥에 내던져 지는 누군가.
상처투성이의 억대다.
쓰러진 억대 앞에 서는 간부1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구겨 억대 앞에 적선하듯 던진다.
통통- 부은 눈으로 구겨진 돈을 보는 억대.
피딱지 가득한 손으로 돈을 잡는다.
구경거리라도 난 듯 보는 사람들을 피해 어둠속으로 묻히는 억대.

73. 야모토 관사 밤

조선의 자기와 그림으로 가득한 관사.
도르르- 차를 따르는 미키.
야모토 앞 기모노를 입고 정좌하고 있는 모리.

야모토 조선의 자기는 참 오묘하지
 화려하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답단 말이야
 이 모양하며 이 빛깔하며....
 특히 이 찻잔과 자네가 들고 있는 찻잔은 더 특별하다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사용했던 것이지.

향을 음미하듯 코에 가져다 대고 모리를 똑바로 보는 야모토.

야모토 전국시대의 패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독한 자기 애호가였네-
 그런 히데요시는 세상에 단 두개 밖에 없는 진귀한 자기 중
 하나를 가졌네. 히데요시는 나머지 자기를 갖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드디어 그 나머지를 손에 넣었지.
 그런 다음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찻잔을 집어 던져 버리는 야모토

미키 쟁- 그것을 박살내버렸죠
 세상에 단 하나의 자기를 소장하기 위해....

요염한 웃음과 함께 우아한 빛깔의 견포로 덮인 보꾸러미를 모리 앞으로 밀어 놓는 미키.

스르르- 견포가 벗겨지면 수북하게 쌓인 지폐다발이다

야모토 모리인지 엄복동인지 진정한 자전거 왕이 누군지
이제 곧 결정 나겠지! 하하하핫!

척- 단숨에 차를 비우는 모리

74. 일미상회 밤

무슨 일인지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는 복동.

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너나 나나 똑같아 알아?

억대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후우- 길게 한 숨을 내쉬는 복동.

75. 조선 물산 소비조합 현판식 오후

스르르- 흰 천이 벗겨지며 드러나는 ‘조선 물산 소비조합’ 현판.
곳곳에 걸린 현수막 아래 개원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intercut) “조선사람 조선의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장려”

행사 연단,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복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수하.

조합장 여러분, 오늘 조선 물산 소비조합의 개원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주 귀한 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선의 피를 다시 끓게 하고 조선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한
자전거 영웅 엄복동군입니다.

우와- 일제히 환호성으로 복동을 환영하는 사람들.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이크를 잡는 복동.

복동 아.. 아..

길게 하울링이 번지고 복동의 어색한 행동에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복잡하기만 한 심정에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아득하기만 하다.

복동 이런 좋은 자리에 보잘 것 없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개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요즘 서양에서 싼값의 노리개가 들어와서
죄다 서양 노리개만 찾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것을 입고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순간, 행사장을 가르는 날 선 목소리.

손동호 엄복동! 당신이 진정 물산장려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어수선훈해지는 행사장.

손동호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맘 편하게 자전거나 끌어안고 사는 당신이
어찌 물산 장려를 말할 수 있어?

당황하는 복동.

손동호 왜놈들이 자전거 경주를 이 땅에 들여 온 이래
지금 조선 팔도에는 삼백개의 대리점이 생기고 50만대의 자전거가
굴러다니고 있소. 그 자전거가 다 조선의 것이오?
그 대부분이 일제요 불란서 제이오.

조합장의 눈치를 받고 손동호를 부여잡는 조합원들.
강하게 뿌리치며 더욱 독에 받히는 손동호.

손동호 어디 그것뿐인가? 총독부는 자전거 취제규칙을 만들어
전국의 자전거마다 세금을 매겨 조선인들을 수탈하고 있소
이 모든 것이 다 네놈의 알랑한 제주로 인해 일어난 일이지
네놈이 어찌 낫짝을 들고 다닌단 말이나?

조합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손동호.
손동호의 독설에 충격 받은 듯 멍해지는 복동.
예기치 않은 사태에 수하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행사장.

76. 일미상회 오후.

뒷마당에 피어 있는 국화를 보며 앉아 있는 복동.
복동에게 놀아달라는 듯 머리를 부비며 장난을 치는 백구.
몇 번 장난을 걸어도 대꾸 없는 복동에게 빠지기라도 한 듯 눈을 내리깔고 그 자리에 털석- 앉는다.
이때- 뒷마당으로 모습을 보이는 황재호.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는 복동.
놀아줄 사람이 생겨 기쁘기라도 한지 꼬리를 흔드는 백구.

황재호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복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재호 조합 앞에서 그 치가 이야기한 것은 그만 잊어 버려라
 그 자의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경주에 집중해야 할 때야
복동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한 복동의 얼굴

77. 용산연병장 오후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경주 장.
모두들 눈이 빠져라 엄복동의 등장을 기다리고 곳곳에서 ‘엄복동’을 목 놓아 부르짖는다.
관중들의 열광적 지지가 무색하게 침울 하기만한 복동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수하
이때- 경주장의 이목을 순식간에 장악하며 출전하는 모리
한 눈에 봐도 거인 모리의 월등한 신체조건에 이곳저곳 탄성이 터져 나오고

갑테 아따 저 새끼 등치 한 번 태산 같구만

초점 없는 눈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는 복동.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억의 조합들

복동의 얼굴을 강타하는 아버지의 주먹.
빠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복동.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죽어- 죽어 이 새끼야”

복동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붓는 손동호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맘 편하게 자전거나 끌어안고 사는 네 놈이
어찌 몰산 장려를 말할 수 있어?

복동을 노려보는 억대

“엄복동 잘난 척 하지 마! 너나 나나 똑같아 알아?

후-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복동 옆에 서는 모리

모리 기다려라.. 오늘 누가 더 빠른지 알게 될테니까

순간, 고개를 돌려 보는 복동.

태산 같은 모리를 보고 하얗게 질려 버린다.

복동의 이상 징후에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야모토

탕- 적막을 가르는 총성과 함께 이어 일제히 화락- 튕겨져 나가는 자전거들.

순간, 어어어어~ 놀라는 관중들.

바라보면, 모두 떠난 출발선에 복동 혼자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돌처럼 몸이 굳어버린 듯 가만히 서 있는 복동.

반면, 자전거를 종이조각처럼 구겨버리듯 달리는 모리

우와와와- 모리의 무시무시한 괴력에 말 문을 잃은 관중들

모리의 단독 질주를 바라보며 한시름 놓은 듯 그제야 웃음 만면 하는 야모토

아이와 어른의 경주를 보는 듯 다른 차원의 모리의 질주에 혀를 내두르는 관중들.

상상을 초월한 강자의 등장에 더욱 열광적으로 달아오르는 용산 연병장.

승리의 기쁨이 달갑지 않은 듯 무표정한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리

보면 쓸쓸히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동이다.

78. 사깨야 밤

사미센 가락과 함께 축배를 드는 요요기 간부들.

간부1 태양이 아무리 찬란해도 지기 마련이라더니
야모토 지사장님의 지락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천하의 엄복동이 모리에게 풍무니를 빼는 꼴이 얼마나 통쾌 하던지요.
그 겁먹은 표정이... 킬킬킬

깔깔 과장되게 웃어젖히는 간부1

간부2 다가올 페이지 신궁 봉축대회에 황세자 내외분께서 참관하시는데
이대로라면 안심입니다.

이때, 와락- 미닫이문을 박살낼 듯 열고 들어서는 모리
비틀거리는 몸을 주체 못하고 술잔을 들이대는 간부1

간부1 모리상 오늘 경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황- 말이 끝나기도 전 간부1을 들어 던져 버리는 모리
이글거리는 모리의 기운에 슬그머니 꿈무늬를 빼는 악사들.

모리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경주장만은 그러지 않는 곳이라 알았다
사무라이 정신은 어디가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가?
당신들은 오늘 이 모리를 능멸했다
엄복동을 데려와라
정정당당하게 눈과 붙고 싶다

좌직- 손에 쥔 술잔을 박살내며 쏘아보면 슬쩍- 시선을 내리는 미키
씨익- 특유의 미소를 짓는 야모토

79. 주막 밤

탁배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는 구경꾼1,2,3

구경꾼1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더니 딱 그 말로써
구경꾼2 어허, 이 사람 무신 선부른 소릴?
구경꾼3 그럴 만도 하지, 엄복동이가 모리에게 겁을 먹고 글썽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다잖아

순간, 퍼억- 술병을 집어 던져 버리는 갑태

갑태 느그들 터진 주탱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80. 공터 오전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는 산옹과 아이들.

아이1 모리가 이겨 새끼야!
산옹 아니야- 엄복동이 이겨!
아이2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엄복동은 껌도 안돼 임파-
산옹 아니야- 엄복동이 더 쎄!!
아이3 그럼 경주에 왜 안나오는데?
산옹 그.... 그건.. 지금 부상 치료 중이야-
아이1 웃기지 마 새끼야-
 엄복동이 껌먹어서 경주 안 나온다는 거 다 알아

아이1에게 주먹을 날리며 달려드는 산옹.
서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땅바닥을 뒹구는 산옹과 아이들.
이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수하.
잡싸게 도망치는 아이들.

아이1 가서 엄복동이 똥구녕이나 빨아먹어라 새끼야!!

낄낄대며 도망치는 아이들을 쫓아가려는 산옹의 팔을 부여잡는 수하

수하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산옹 (울분에 차 서럽게 울며)
 저... 새끼...들이... 엄복동이... 진대잖아!
수하 복동이 형이 이길 거야
 재들이 몰라서 그래
산옹 누나, 그렇지?
 복동이 형이 이기지?

고개를 끄덕이며 때 가득한 산옹의 얼굴을 닦아주는 수하.
후- 절로 새어 나오는 한숨.

81. 복동 집 저녁

집집마다 부뚜막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풀벌레 소리 만 들려오는 고즈넉한 저녁.
날랜 손놀림으로 저녁을 준비하는 봉선.

off)아버지 아직 떨었나?
봉선 네- 지금 가요

밥상에 떨어진 밥풀을 입에 훑치며 서둘러 부엌을 나서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제자리에 한 참을 서있는 봉선.
보면 복동이다.

봉선 자..작은오빠?
off)아버지 이 녀의 기집애가..

문을 열면 한 눈에 들어오는 복동이.

아버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뭐해 들어오지 않고..

cut to

오랜만에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
봉선의 입가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귀동 복동아 정말 장하다
 나는 아직도 네가 조선최고 자전거 선수라는 게 안 믿겨져
봉선 정말 신통방통하다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이고 경성에 갈까 했는데
 (아버지 눈치 보며) 그게 어디 맘대로 되야지
 오빠 이야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어허.. 밥상 앞에서.. 밥이나 먹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여전하시지? 복동을 꾸욱- 찌르며 웃음을 참는 봉선.
이때, 앞에 놓인 돼지고기를 집어 복동의 밥 위에 덩석- 올려 주는 아버지
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귀동, 봉선.

아버지 운동 허는 녀이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깨작거려야 쓰겠나

허엄- 송충을 들이키시더니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리시는 아버지.

82. 복동 방 아침

채 안개가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북-북- 야무지게 쌀을 씻는 봉선.

입에서는 절로 흥타령이 새어 나온다.

어험.. 봉선의 눈치를 보며 마루에 걸터앉으시더니 복동 방문을 뚫뚫히 열어보는 아버지

아직 누워 있는 복동을 확인 후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벌떡 일어서는 복동

아버지 (멋쩍게) 잤냐? 더 자거라
복동 아니예요. 일어나야죠.

말없이 한 참을 그대로 있는 부자.

어색한 정적을 먼저 깨고 복동을 돌아보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다 똑같은 옷만 입어서 언놈이 언놈인지 어떻게 알겠냐?
 입어봐라

어험.. 께련을 말아 돌아서시면..

보자기에 싸인 것을 풀어보는 복동.

보면 등에 ‘엄복동’이라고 한 획 한 획 눌러 써진 빨간색 운동복이다?

변소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복동.

intercut)

불편한 다리를 절룩이며 경성으로 향하는 아버지.

‘엄복동’을 외치며 열광적 응원을 보내는 관중들 사이 두 눈을 고쳐 뜨고 아들을 찾는 아버지.

모두 젓빛의 운동복을 입고 있는지라 도통 구별이 쉽지 않다.

그제야 복동을 찾고 밝아지는 아버지.

복동 설마 아..아버지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먼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고 벅차오르는 복동의 얼굴.

83. 일미상회 밤

희미한 화등잔 아래 아버지가 주신 빨간색 운동복을 펼쳐 보는 복동.

이때, 인기척도 없이 방문을 여는 산옹.

복동의 손을 부여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간다.

cut to

산옹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는 복동.

순간, 휘둥그레지는 복동의 눈.

보면 일미상회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다.

스옥- 복동 앞으로 다가와 꾸러미를 전하는 아낙.

아낙 황토 옹기로 일흔 두 시간 동안 정성으로 우려낸 홍삼이에요
이 번 경주에서 꼭 이겨주세요

아이 아저씨, 우리 닭이 낳은 달걀인데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할머니 보리떡이지만 이게 보기엔 이래도 맛이 아주 좋다우

저마다 계란이며, 떡이며, 오리며.. 복동의 승리를 두 손 모아 염원하는 사람들.

수하의 부축을 받으며 앞에 서는 황재호.

황재호 복동아! 이 사람들을 봐라
이겼다는 소리 한 번 못 듣고 헐벗은 이 사람들을 봐라
네가 희망을 줘야지 네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복동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겨라!!

심장을 움켜쥐는 장중한 메인 테마음악이 흐르고

어디서부터가 ‘엄복동’ ‘엄복동’ 희미했던 외침이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복동 앞으로 자전거를 가져오는 수하.

수하 조선 최초의 자전거예요!
타이어나 리무는 영국제지만 차대와 부품은 모두 순수 조선제예요
어때요? 한 번 해볼 만 하지 않겠어요?

찌잉- 시큰해지는 복동의 콧날.

황재호 복동아,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네 자전거야

‘엄복동’ ‘엄복동’ 가라앉았던 투쟁심에 시동이 걸리듯 화락- 불타오르는 복동의 눈.

상기된 수하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황재호.

황재호 복동이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84. 최후의 경주

최악- 순식간에 화면 열리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빛.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내. 엄복동이다!
고오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함성이 복동을 깨우듯 휘몰아치고
순간, 번쩍- 눈을 뜨면, 콰악- 금방이라도 복동을 집어 삼킬 듯 넘실대는 거대한 흰 노도.
수십만 백의의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의 물결 앞, 그 위용을 뽐내듯 당당히 펼쳐지는 용산연병장.

관중석

경성 모든 사람들을 끌어 담고 용광로 같은 열기를 토해내는 관중석
모리와 엄복동 두 건각이 펼치는 세기의 대결을 놓칠세라 인산인해다

봉선 비켜 주세요- 엄복동 가족이에요--
 비켜 주세요- 엄복동 가족입니다--.

관중들 틈을 겨우 겨우 뚫고 자리를 잡는 아버지, 봉선, 귀동
관중들 사이 보이는 낯익은 얼굴. 검게 그을린 억대다.

본부석

고적대의 위엄한 연주와 함께 본부석에 오르는 고종.
야모토를 지나며 부딪히는 팽팽한 시선에 그 어느 경주 보다 비장함이 묻어있다.
눈치를 살피며 야모토에게 속삭이는 간부1

간부1 준비 됐습니다
야모토 소리 안 나게 해야 돼
간부1 걱정 불들어 매십시오.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야모토와 간부1

경주장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관중들에게 단비처럼 울려 퍼지는 고적대의 행진곡
우와와- 하나 둘 출전하는 선수들을 쫓는 수만의 시선들.
순간, 우와아- 관중들의 이목을 단 번에 주목시키며 출전하는 모리
경주 시작 전부터 감도는 무시무시한 전운에 벌써부터 들썩이는 관중석.
이제 맞수 엄복동이 출전하면 세기의 대결이 시작될 터 고개를 빼고 살피는 관중들.
이미 출발선에 정렬해 잔뜩 버르고 있는 모리를 보고 불안한 표정이 되는 억대
여전히 복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술렁이기 시작하는 관중들.

출전대기실

관중들의 술렁임이 새어 들어오는 대기실.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연신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내는 병철.

병철 복동아, 나가야지.. 복동아?

애써 나름대로의 독촉을 해보지만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는 복동.

스윽- 핸들을 매만지는 거친 복동의 손.

굳은 얼굴의 복동이 대화를 청하듯 페달에 손을 가져대자 지이잉- 묵직한 기지개로 화답하는 자전거.

손을 마주 잡듯 페달을 잡고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복동.

쟁쟁쟁쟁--태동하듯 격렬히 요동치는 체인.

금방이라도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를 듯한 야생마의 포효에 기가 질려 버리는 병철

훗- 비로소 밝아지는 복동의 표정.

병철 복동아- 잘해라

씨익- 미소로 답하며 출전하는 복동.

순간, 숨을 몰아쉬며 새하얗게 질리는 병철의 얼굴.

보면 병철의 손에 송곳이 쥐어져 있다.

슈- 복동의 자전거 앞바퀴에서 새어 나가기 시작하는 공기.

관중석

복동을 손꼽아 기다리며 경주장 구석구석 목을 길게 빼고 살피는 관중들.

이대로 경주가 시작되려는 불안감이 전염되는 관중석

순간, 번쩍- 눈이 트이더니 이얏- 환호성을 내지르는 봉선.

봉선 아버지 저기 저기 오빠예요 오빠

보면 빨간색 운동복 입은 복동이 출전하고 있다.

멀리서도 뚜렷히 보이는 빨간색 운동복에 아들을 확인하고 어느새 환해지는 아버지의 얼굴.

준비한 팽과리를 후려치며 우레와 같은 관중들의 함성을 끌어내는 갑태와 인력거꾼들

출발선

척- 모리 옆에 나란히 앞바퀴를 정렬시키는 복동.

파뻑- 격렬히 부딪히는 두 사내의 눈빛.

복동 어디 누가 더 빠른지 가려볼까?
모리 요시!

불타오르는 투쟁심에 미소를 발하는 모리
순간- 탕! 정적을 깨는 총성
한껏 잡아당긴 고무줄이 튕겨 나가듯 파앗- 쏜살처럼 치고 나가는 복동과 모리

관중석

작전 따윈 필요 없이 아예 시작부터 펼쳐지는 화끈한 승부에 노도와 같은 함성을 토해내는 관중들
마치 자신이 경주하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보는 역대

경주장

최강자들의 힘과 힘의 대결에 다른 선수들은 그저 들러리 일뿐.
시작부터 맞불을 놓듯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복동과 모리
그야말로 양웅상쟁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나란히 선두를 질주하는 쌍웅
슈- 복동의 앞바퀴에서 점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공기.
한 치 두 치.. 점점 눈에 띄게 밀리기 시작하는 복동.
맘먹은 대로 나가지 못하는 자전거에 당혹해 하는 복동.
이틈을 타고 순식간에 복동을 앞질러 완전한 선두를 질주하는 모리

본부석

모리의 기세등등한 질주를 보란 듯 고종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야모토
땀이 차는 손바닥을 애써 닦아내는 고종.

경주장

으아아--- 벌써부터 모든 체력을 태워버릴 것처럼 사력을 다해 페달을 밟는 복동
그러나, 페달을 밟을수록 공기가 더 빠져나가며 눈에 띄게 흐물흐물해지는 바퀴.

대기실

무슨 일인지 복동의 심상치 않은 주행에 어두워지는 황재호와 수하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 쳐 도망치는 병철

경주장

이를 악다물고 페달을 짚는 복동.
이미 한계에 달한 듯 금방이라도 터져 버릴 듯 시퍼렇게 팽창된 핏줄.
생을 걸고 벌어지는 사투에 어~ 경악해버리는 관중들.

경주장

어느덧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을 준비하는 심판장
선두로 모리가 통과하자 땡땡땡땡- 힘차게 종을 내리 치고
그 뒤를 맹추격하는 복동.

관중석

복동의 패배를 직감한 듯 어두워지는 관중석
덥썩- 봉선의 손을 잡는 아버지.
봉선은 귀동의 손을.. 손에 손을 부여잡고 승리의 염원을 담은 관중들.
시작을 알 수없는 누군가로부터 ‘엄복동’ ‘엄복동’이 터져 나오고 어느새 ‘엄복동’을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역대.
순식간에 경주장 전체로 전염되어 울려 퍼지는 민중의 외침이 복동을 거세게 흔들어 깨운다

경주장

순간, 으아아아- 악을 토해내며 번쩍- 하늘 높이 엉덩이를 쳐 올리는 복동.
그제야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난 듯 일제히 **올 라 간 다 아--**를 목놓아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관중들.
(고속) 짜악- 바퀴를 감싸고 있던 고무가 찢어져 나가며 흉하게 드러나는 쇠 바퀴
끼이이익-- 오로지 쇠바퀴만으로 달리고 있는 복동
티딩- 티딩- 바퀴살이 튕겨 얹히면서 파땃- 거센 불꽃이 튀어 오르기 시작하고
눈앞의 기괴한 상황에 경악해 버리는 관중들.
용이 불을 뿜어내듯 불꽃을 내뿜으며 파파파땃-- 순식간에 모리를 따라잡는 복동.
목숨을 건 두 스포린터의 사투가 시간의 흐름조차 느리게 만들고
결승선을 향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는 복동과 모리.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경주 장에 거친 맥박만이 숨을 내쉬고
마지막 순간, 파앗- 총알처럼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전거.
바로 엄복동이다!! 엄복동이 이겼다!!!

치링- 치링- 이미 흥측하게 구겨진 자전거를 타고 야모토 앞에 서는 복동.
파땃- 야모토를 쏘아보는 복동의 매서운 눈
슬쩍- 눈을 내리는 야모토.

야모토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이때, 복동 앞으로 달려오는 거인 모리

모리 멋진 승부였다

복동 나 역시 최고의 경주였다

사무라이처럼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모리, 엄복동의 손을 들어 승자를 만천하에 알린다
우와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 놓아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이 자전거”

진정한 승자를 향한 축하를 부르는 관중들.

아버지를 향해 자전거를 번쩍 들어 올리는 복동.

자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아버지.

봉선 아버지, 보세요 오빠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 그려... 내 아들이여!! 내 아들!!

복동을 무등 태우고 관중들에게 자랑하듯 보이는 아버지.

봉선과 귀동도 덩실 덩실 춤을 춘다.

씨익- 처음으로 환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 역대

황재호와 수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다

평평- 인형극 인형처럼 눈물을 쏟으며 김두한과 얼굴을 부비는 갑태. 화들짝- 서로 떨어진다.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복동.

그 얼굴 위로 햇살이 찬란하게 부서져 내린다.

자막

엄복동은 1918년 전 조선 자전차 대회에서 우승 후
1933년까지 무려 15년간 무적의 자전거 왕으로 군림하며
당시 일제하에 억눌린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우월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

" 일본 측은 그를 누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었다... "

실제 엄복동의 기록사진과 함께 박력 있게 떠오르는 스텝스크롤.

끝

09/09/20/ 06th draft